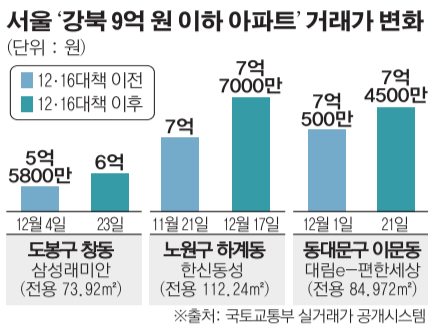


박용만 “규제에 막힌 드론…中보다 존재감 떨어져” 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오픈 6

## 집값 ‘풍선효과’…강남 누르자 강북 치솟았다

‘12·16 부동산 대책’ 한 달  
창동 래미안 호가 1억 쯤  
신고가 속출하며 거래도 활발  
강남은 하락세에 매수세 끊겨



서울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인근에 들어선 도봉구 창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이 단지는 창동역 창업·문화산업 복합단지 개발 등 호재에 힘입어 지난 2년 새 몸값이 배 가까이 뛰었다. 그리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작년 말 꺼내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 이후 매매가가 한 번 더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5억58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73㎡형이 최근 6억 원에 팔린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6억3000만~6억5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 강북권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신고가 거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광창역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가 강남을 겨냥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풍선효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비강남지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12·16 대책이 오히려 강북 집값만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한 달이 다가오면서 서울 주택 매매시장은 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매도 호가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9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상승세가 뚜렷하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한신동성아파트 전용 112㎡형 거래 가격은 작년 11월 7억 원에서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2월 17일 7억7000만 원으로 올랐다.

반면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이달 들어 호가가 2억

원 이상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끊겨 거래 정지된 상태다.

9억 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LTV 20% 하향 조정)과 15억 원 초과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았으나, 주로 강북권에 몰려 있는 중저가 아파트는 규제에서 비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자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거래가 끊겼으나 그 이하 아파트는 강세를 보였다”면서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르는 가격대가 ‘9억 원’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가격대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숫자(가격)’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강남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반이대이지 않고, 가격 상승폭이 작았던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융합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정책의 경계를 ‘숫자(가격)’로 놓는 순간 시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12·16 대책)이 고가, 9억 원, 다주택자에서 나아가 15억 원이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트럼프 ‘전쟁 대신 경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정부 고위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인명피해는 전혀 없다”면서 “군사행동 대신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란의 핵개발 관련에선 여전히 융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면  
워싱턴D.C./EPA연합뉴스

〈몽골어로 ‘한국’〉

### ‘솔롱고스 유통’에 쫓긴 칭기즈칸 후예들

글로벌 ‘K-브랜드’를 찾아서

이마트·CU 등 편의점 몽골 소비자 ‘복적’  
K콘텐츠 덕분에 한국 기업 호감도 상승  
단기간에 현지 시장 안착…사업확장 속도

지난달 19일 오후 2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가인 항울구(區)에 있는 몽골 이마트 3호점을 찾았다. 매장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를 피해 사람들은 건물이나 차 안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차로 가득한 주차장만이 인적을 짐작하게 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 대조적인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었다. 매장을 둘러보니 한국과 똑같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계산대 직원들이 포스기를 들고 제품 바코드를 찍어냈고, 고객들은 카트에서 계산대로 부지런히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에 이곳이 서울에서 2000km 떨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뻔했다. 매장에서 만난 이트경치메그(31) 몽골 이마트 3호점 점장은 “가격은 물론 품질까지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노브랜드’ 과자의 경우 가격 거품이 없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울란바토르 수

흐바타르구에 있는 편의점 CU의 샹그릴라 1호점을 찾았다. 매장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오토그(22) 씨는 “바블 때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CU를 찾았다”며 “몽골 내 다른 편의점보다 음식이 맛있고 건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2018년 몽골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시장에 진출한 BGF리테일은 지난해 말 기준 몽골에서 55개 매장을 운영하며 현지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몽골은 한국을 ‘솔롱고스’라 불렀다. ‘무지개가 뜨는 나라’라는 뜻으로, 한국에 대한 몽골의 정서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옛날 몽골족의 일부가 남쪽으로 무지개를 쫓아 내려갔고, 초원에 남은 몽골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동족을 ‘형제의 나라’라는 의미로 ‘솔롱고스’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몽골은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온 ‘솔롱고스’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K 콘텐츠’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한 삼성, LG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역사적 친밀감과 결합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BGF리테일(CU)은 몽골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짧은 기간에 현지 시장에 안착,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면에 계속

울란바토르(몽골)=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타다 금지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여야 이견에 법사위 상정 못해…인터넷은행법도 무산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졌다.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상정이 불발돼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역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의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앴다. 법안이 통과되면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와 택시 업계 등 다양

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일 것이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안 통과에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다음 법사위로 연기됐다. 이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케이뱅크는 당분간 ‘개점휴업’을 지속하게 됐다. 김하늬 기자 honey@

### 삼성 준법감시위 내달 공식 활동

### 김지형 “이재용 만나 독립성 약속받아”

외부 6명·내부 1명 등 위원 7명

김지형(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용 부회장 형사 재판에서의 재판장 권유 때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한 것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직 수락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삼성 준법경영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원회의)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했다”면서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부회장을 만났는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 달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준법감시위는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대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삼인속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CEO들 체험하며 미래 청사진... 정부 규제에 '쓴소리'

## 현장 찾은 사장단, 혁신기술 '열공 모드'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CEO는 자사 부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돌며 업계 최신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 전시관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의 일부 CEO 역시 개별적으로 CES 현장을 찾아 미래 사업을 위한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오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박지원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함께 CES 2020 전시장을 둘러봤다. 두산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CES에 참가했다.

박 회장은 로보틱스, 드론, 인공지능(AI) 등이 전시되는 사우스 홀에 위치한 두산 부스를 시작으로, 센트럴홀에 위치한 삼성 전자 등을 비롯해 노스(North) 홀까지 오

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 LS도 이러한 솔루션 관점의 시각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화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비공식 일정으로 전시관을 돌아봤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최근 차세대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인 투명 PI 필름과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용 막전극접합체(MEA)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전시를 눈여겨 보고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두산과 삼성전자 부스 등을 방문했다. 특히 두산 부스를 참관한 후 정부의 규제 강화에 쓴소리도 내뱉었다.

박 회장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 부스를 돌아본 후 "디스플레이와 모바일은 삼성이 세계 톱이다 정말 자랑스럽



1 'CES 2020' 현장을 찾은 박정원(왼쪽)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가운데) 두산중공업 회장(두산그룹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 구자은(오른쪽) LS 미래혁신단장이 Protecto(프랑스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업체)의 IoT 기반 데이터분석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3 박용만(맨 왼쪽)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CES 2020 삼성전자 전시관의 QLED 8K 존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LS그룹

## 박정원 AI·협동로봇·IoT 등 최신기술 트렌드 선도 최선 구자은 SW·서비스 결합으로 고객경험 차별화 이끌 것 박용만 규제 장벽에 막힌 드론... 中보다 존재감 떨어져

가며 국내외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했다.

박 회장은 특히 AI, 드론, 5G(5세대 이동통신), 협동로봇,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두산 사업과 연관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꼼꼼히 살폈다.

CES 현장을 살펴본 박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분야에서 최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CES에서 우리가 제시한 미래 모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구자은 LS그룹 미래혁신단장 겸 LS엠트론 회장도 CES를 찾았다. LS그룹이 전시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구 회장은 삼성 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의 전시관을 방문했다. 그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구 회장은 "이번 CES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닌 소

다"고 말했다. 다만 두산 전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드론을 예로 들며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을 못 한 거 아닌가(생각한다)"라며 "규제 혁신을 못 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은 여기 오면 설 땅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지만, 미래는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다"며 "미래를 막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지도자가 우리가 익숙한 자랑스러운 그늘에서 미래를 여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유레카 서울 인 CES(Eureka Seoul in CES)'에 참가해 축하했고, 이날은 한글과컴퓨터그룹과 두산 등 한국 참가기업과 스타트업의 부스를 함께 둘러봤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 권봉석 LG전자 사장

### "롤러블 올레드 TV 이르면 상반기 출시"



권봉석 LG전자 사장이내년에스마트폰과전장사업에서턴어라운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롤러블 TV는 이르면 올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권 사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O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턴어라운드 목표를 2021년으로 연기했는데, 그 일정이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제품의 경쟁력과 라인업 변화, 또 프리미엄 판도를 바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또 "전장 사업은 매출이나 제품 믹스에 따른 원가율을 추정할 때 모바일과 같이 내년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챙겨나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폴더블폰 출시 여부에 대해 그는 "롤러블을 하는 회사가 왜 폴더블을 안 하고 있겠느냐"며 "시장 해석에 차이가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리미엄 혁신 제품으로 내놓으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롤러블 올레드 TV 출시 계획도 밝혔다. 권 사장은 "이르면 상반기, 늦어

## "스마트폰 등 내년 흑자 전환 소비패턴 분석해 시장 대응"

도 3분기 이전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 올레드가 전체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했고, 고가의 제품인 데다 돌돌 말리는 제품이다 보니 신뢰성 확보에 더 신경을 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 고객에게 가치를 준다는 '사업의 본질(本質)'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수익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와 국제 경제의 불안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올해 경영 환경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변화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또 고객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개인화된 경험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처럼 변화하는 고객과 소비 패턴을 빠르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등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 삼성전자 'C랩 전시관' 가보니

# 인공햇빛 조명·가상 키보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 사내벤처 우수과제 제품 선보여 운동검사 솔루션 스타트업 '피트' ML 뉴욕양키스 코치진 상담도



삼성전자 C랩 인사이트 과제원들이 관람객에게 인공 햇빛을 생성하는 창문형 조명 '씨나사이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에도 따뜻한 햇빛이 잠을 깨운다. 인공 햇빛을 만드는 창문형 조명이 햇빛을 1년 내내 들게 해주는 덕분이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파장은 빼고, 비타민D 합성만 유도해 건강에도 좋다. 태양의 위치와 석양 등 색 변화도 재현했다. 인공 햇빛 생성 조명은 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인 '씨나사이드'가 개발됐다.

8일(현지시간) CES 2020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샌즈 엑스포 1층 G홀 유레카 파크를 찾았다. 이곳엔 C랩 인사이트 우수 과제 5개와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 출신의 스타트업 4곳이 전시돼 있다.

C랩은 창의력 넘치는 젊은 직원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술로 현실화한 제품들을 공개했다. 기발하고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을 본 관람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큰 관심을 보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가상 키보드 솔루션을 선보인 '셀피다이'는 체험해 보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별도의 장비 없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고, AI가 분석

을 통해 쿼티 키보드 입력으로 전환해 준다. 기자도 직접 타이핑을 해봤는데, 인식률이 꽤 좋았다.

종이에 밑줄 그은 글을 디지털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형광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종이 위의 텍스트에 밑줄을 그으면 연동된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입력된다. 이를 위해 펜촉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았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다양한 검색 엔진과 연동도 가능하다.

두피 케어 및 탈모 예방 홈케어 솔루션도 있었다. 사용자의 두피를 측정하면 두피 각질, 민감도, 머리술, 온도, 유수분 등 데이터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후 두피 상태 분석 결과 제공 및 맞춤형 솔루션을 추천한다.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스타트업도 흥미로운 제품을 많이 내놨다. 서큘러는 1인 가구를 위한 반려 로봇 '파이보(Pibo)'를 개발했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교감하며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성장하는 로봇이다. 이 회사 박종건 대표는 "주인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건네는 등 노령화 및 1인 가구 시대를 위한 반려 로봇"이라며 "부천시 노인복지 시설에 현재 공급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랩 아웃사이드 지원 스타트업 중 운동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트는 삼성전자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홍석재 피트 대표는 "전날 뉴욕양키스 코치 두 명이 찾아와 긍정적으로 미팅했다"며 "삼성전자 C랩이란 타이틀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병원에서만 측정 가능했던 운동검사를 누구나 언제든 쉽게 검사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 대표는 "현재 독일 올림픽트레이닝센터가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며 "올해에는 우리나라 진천선수촌 등 정부 기관 등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송영록 기자 syr@

〈현대3단지 전용 74.92㎡〉

〈내집 마련 포기〉

# 광장동 집값 한 달새 1억 ↑ ... ‘집포자’ 몰리며 전셋값 급등

## 왜곡되는 서울 아파트시장

세금·대출·청약 규제를 망라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강남권은 매수세가 끊기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권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12·16 대책 이후는 강북권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강북지역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몇 주 사이에 수천만 원 올랐다. 강북 14개 구 중에서도 강북·광진·도봉·노원·동대문구 등에서 12·16 대책 이후 실거래가가 대폭 오르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남 고가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였던 강북 주택시장이 서둘러 ‘갭 메우기’(가격 따라잡기)에 나선 것이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전용 59㎡형은 12·16 대책 발표 전인 작년 12월 13일 4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해를 넘기는 사이에 2000만 원이 올라 이달 초에 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광진구 광장동 현대3차 전용 74.92㎡도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1억 원 넘게 올라 지난달 말 9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부동산 불패’를 몸소 보여줬던 강남권 고가아파트 매매시장은 12·16 대책 이후 정체기에 들어갔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 뛰던 과열장 때와 비교하면 판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97㎡는 대책 발표 전인 작년 12월 11일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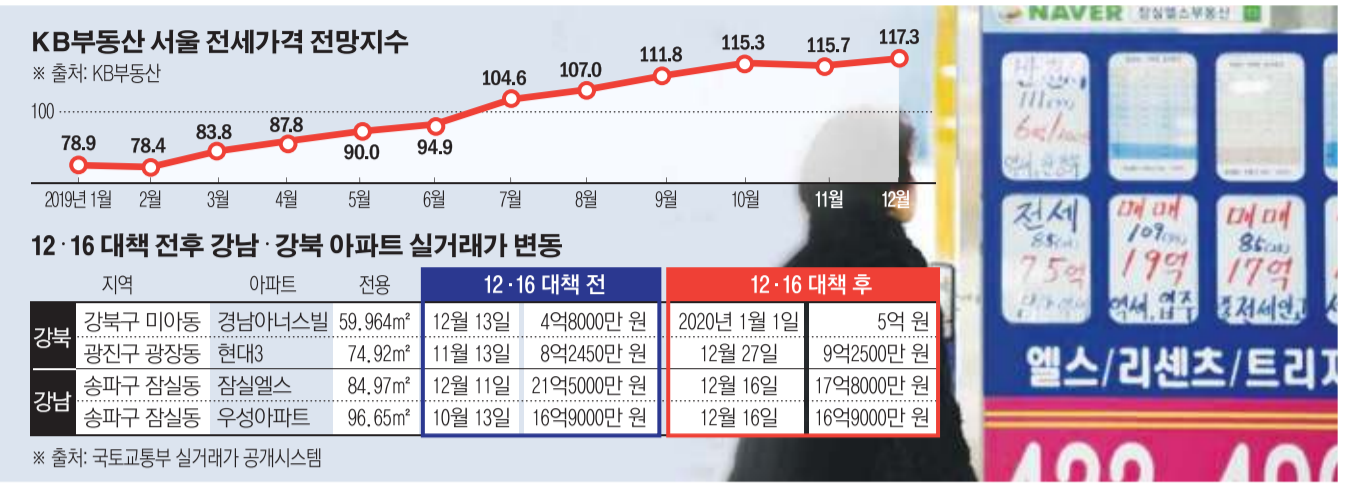
강남 고가주택 매매 정체 보일 때 강북 9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급등 내 집 엄두 못내는 수요자 ‘전세’로 서울 전셋값 상승 50개월 만에 최고

발표 당일 매매가가 3억7000만 원 빠진 17억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2·16 대책 후에 나타난 양극화 현상은 그간 지적해왔던 ‘규제의 역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대출 규제를 피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키맛추기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부가) 조장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만 적용하도록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초고가 주택의 매물이 나오면서 (고가 주택의) 호가가 꺾이는 현상은 2018년 9·13 대책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9억 원 이하 아파트값은 오르고, 15억 원 이상 가격은 정체되는 상황이 상반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맞물려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갈 곳을 잃은 수요자들은 전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교육제도 개편으로 명문학교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강남·양천구(목동)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2·16 대책 품



선효과까지 더해져 서울 전세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작년 12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2015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68㎡형 전셋값은 작년 11월 3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다가 작년 말에는 4억2000만 원까지 올랐다.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전세가

격 전망지수를 보면 서울의 작년 12월 수치가 117.3(100을 웃돌수록 상승 전망 비중이 큼)을 기록했다. 2016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전셋값이 오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책이 전셋값만 부추겨 결국 서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셈이다.

송인호 부장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도 많아졌다”며 “전셋값 상승은 장

기적으로 매매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셋값 상승 현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려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2·16 대책이 원래 목표인 시장 안정화 방향으로 가려면 공급 시그널이 같이 나와야 한다”며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수요 분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박종화 기자 pbell@

## 정부 “필요하면 추가 대책 꺼낸다” 전문가 “임대료 상승 역효과날 것”

12·16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북 집값과 전셋값만 올렸다는 원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8일 “부동산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매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꺼내들 ‘신무기’에 관심이 쏠린다. 주택 거래 허가제와 같은 초강수까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전·월세 시장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당정 협의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대차시장에 계약 갱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갱신권 도입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재시행도 패키지로 거론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월세 인상을 5% 상한 도입을 공약했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면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주택 임대시장 규제가 임대료만 올릴 것이라 우려도 크다. 규제를 피해 집주인이 첫 계약 때부터 임대료를 높이 부를 공

###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

-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제**
  - 임대차 계약 종료시 최장 2년까지 계약 갱신 허용
  -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허용해야 함
  - 9월 당정 협의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합의

- 전월세 상한제**
  -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 제한
  -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대선 캠페이션 5% 상한선으로 제시

- 주택 거래 허가제**
  - 투기 지역 등에서 실수요자만 주택 매입 허용
  - 참여정부 당시 도입 검토. 위헌 논란에 백지화
  - ‘주택법’ 등 개정 필요

산이 커서다. 한국주택학회는 국토교통부 영역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2.5~11%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실수요 여부를 따져 규제 지역 주택 매매를 통제하는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까지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도입이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거래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으로 사실상 거래 통제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국제정 발표가 정부가 시장을 감시한다는 메시지를 준다.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이란 소모적 논쟁 없이도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당신의 봄

요즘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보험료도 내려가는 시대

걸으면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다양한 상품 서비스 구매까지 삼성화재 포인트 몰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에 건강은 기본, 다양한 혜택까지 더한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anyfit

365일 당신의 걷기 파트너



플레이스토어 혹은 QR CODE를 찍고 애니핏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피보험자 누구나



걷기만 해도 쌓이는 애니포인트  
\*일일 최대 적립액 1천 원 제한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



전용 포인트몰에서 다양한 물품 구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이마트, 바다 없는 몽골에서 광어 판매 '유통 신세계'

## 글 쓰는 순서

- ① K-푸드, 글로벌 식탁 메뉴 바꾼다
- ② 세계인의 지갑 여는 K-쇼핑
- ③ K-뷰티, 전 세계 여심을 홀린다
- ④ K-패션, 뉴욕·밀라노 런웨이 접수
- ⑤ 글로벌 신약 주권 도전하는 K-바이오

### ▶1면서 계속

이마트가 몽골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업계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 등이 이마트의 몽골 진출을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유통기업의 몽골 진출은 비교적 수월했다. 몽골은 예로부터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가 뜨는 나라)'로 부르며 호감을 표했으며, 'K팝 열풍' 등이 더해져 한국 기업의 연착륙을 도왔다. 이마트는 몽골 진출 이듬해인 2017년 2호점을, 2019년 9월 3호점을 개장했고, 4호점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몽골 이마트의 매출액은 2017년 530억 원, 2018년 720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몽골 이마트 3호점

## 해외로 향하는 유통업계

<b>GS25</b> GS25	<b>베트남</b> - 2019년 기준 베트남 56개 매장 운영 - 향후 10년간 2500개까지 확대 계획
<b>CU</b> CU	<b>베트남, 몽골</b> - 2019년 9월 베트남 진출 - 2019년 기준 몽골 5개 매장 운영, 향후 300개 이상 확대 계획
<b>THE SHILLA duty free</b> 신라면세점	<b>홍콩, 마카오, 태국, 일본 등</b> 2019년 11월 마카오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b>DUTY FREE</b> 롯데면세점	<b>오세아니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b> 2019년 10월 싱가포르 창이공항 사업자 선정
<b>LOTTE Mart</b> 롯데마트	<b>인도네시아, 베트남 등</b> -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50호점 개장 - 2023년까지 점포 수 2배 이상 늘려 100여 개로 확대
<b>emart</b> 이마트	<b>몽골, 베트남 등</b> 2019년 9월 몽골 3호점 개장

## 이마트 진출 3년 만에 3호점 신선했던 식료품·해산물 인기 현지인들 "쇼핑의 재미 만끽"

매출 증가에는 현지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한몫하고 있다. 내륙 국가인 몽골에는 바다가 없어 해산물이 귀하다. 또, 척박한 기후로 과일과 채소 재배도 어렵다. 이마트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겨냥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식료품과 해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매장에 공급하며 몽골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고들고 있다.

에트경치메그(31) 몽골 이마트 3호점 점장은 "이마트가 현지 대형마트보다 인기 있는 이유는 신선한 서비스가 강점"이라며 "몽골에서 신선한 제품을 이마트처럼 원활하게 공급하는 곳이 없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어 "품질과 함께 이마트는 몽골에서 쇼핑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며 "이마트에 오면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재미있는 쇼핑'이라는 콘셉트로 현지 문화를 바꿔 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한국산' 돌풍은 이어지고 있었다. 주인공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인 'CU'다.

CU는 2018년 몽골 현지 유통기업인 센트럴익스프레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BGF리테일이 편의점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하고 센트럴익스프레스가 현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을 차용한 만큼 매장 형태와 구성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다. CU와 센트럴익스프레스는 '간편한 식사 제공'과 '다양한 한국 상품이 있는 매장'이라는 콘셉트로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몽골에서 55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몽골 현지에서 CU의 강점은 '간편성'과 '품질 경쟁력', '차별화된 서비스'가 꼽힌다.

이날 오후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구에

## CU,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 '간편·품질' 차별 점유율 1위 즉석조리 핫도그 전연령 인기



몽골 이마트 3호점 광어 판매 수조



CU 상그릴라 1호점 핫도그 조리 모습

있는 CU 상그릴라 1호점에서 만난 자브잔 돌람(20) 씨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가 좋고 겨울에는 매장 안이 따뜻하다는 점도 CU의 장점"이라며 "입맛에 맞는 제품이 많아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CU는 몽골 교육 과정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한 나이인 23세부터 45세까지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일상 속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몽골 CU만의 차별화된 요소도 있다. 겨울철 한국 편의점에서 쯔뽕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몽골 전통 음식인 '호슈르'와 치킨너겟, 핫도그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한다. 특히 '핫도그'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핫도그 가격은 2500~3000투크릭(1000~1200원)으로 싼 편은 아니다. 상그릴라점에서 핫도그를 조리, 판매하고 있는 할리온에르덴(23) 씨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만 매일 100여 개의 핫도그가 팔린다"며 "울란바토르

사람들 사이에선 '핫도그=CU'로 인식될 정도"라고 말했다.

몽골 CU의 영업과 운영 정책을 담당하는 간수크(38) 센트럴익스프레스 디렉터는 "인구 150만 명 수준인 울란바토르는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몽골에서 CU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3만 명이나 된다"면서 "점포 수로 편의점 중에서 가장 많지만 고객 수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CU는 최근 몽골 현지에서 고객 관리 앱을 론칭했으며 올해 매장을 120개로 늘린 후 장기적으로 몽골 내 매장을 3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간수크 디렉터는 "사업 확장을 위해 몽골 내 물류센터를 만들 예정"이라며 "외국의 경쟁사들이 새롭게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나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한 만큼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울란바토르(몽골)=안경무 기자 noglasses@

## 미래 성장동력 찾아 해외로 가는 유통기업들

### 국내 시장 성장 정체에 편의점 앞다퉈 베트남 진출 롯데면세점, 올 해외사업 매출 1兆·세계 1위 도전

면세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국내 유통채널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다 온라인 쇼핑에 밀리는 국내 시장과 달리 동남아, 중국 등 해외 시장은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이미 베트남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인구가 많아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시장이다. GS25는 2018년 1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현지 유통사인 손킴그룹과 손잡고 호찌민의 엠프레스타워와 엠플라자에 각각 1·2호점을 열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

차이제인 GS25가 브랜드와 시스템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유통사가 '투자'와 '운영'을 맡는 방식을 뜻한다. GS25는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5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2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CU도 베트남에 도전장을 냈다. BGF리테일 역시 지난해 9월 베트남 CUVN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에 1호점 문을 열 예정이다. CU는 2018년 몽골 시장에도 진출해 55개 현지 매장을 운영 중이다.

국내 면세점의 해외 영토 확장도 눈에 띈다. 한국 면세산업의 산역사인 롯데면세점은 2020년 2월 14일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 1위, 세계



호텔신라 태국 푸켓 면세점 모습.

사진제공 호텔신라

2위를 기록했다. 2010년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한 이래 미국 괌, 일본 오사카, 도쿄, 베트남 전역 등으로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의 담배·주류 사업자로 선정되며 2020년 6월부터 6년간 입·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해외 7개국에서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2000억 원대에 불과했던 해외 사업 규모는 2020년 1조 원을 바라보며 글로벌 1위를 향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호텔신라는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에 단독 입찰해 지난해 말 사업자로 선정됐다. 향후 5년간 6억 달러(7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신라는 2013년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 태국, 일본

등 전 세계 5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54억 7700만 유로(약 7조 원)를 기록해 세계 면세업계 3위 수준으로 뛰었다.

대형 마트들도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뜨갈시에 50호점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일찌감치 2008년 인도네시아에서 마크로 19개 점포 인수하며 업계 최초로 진출했으며,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여 개의 점포를 연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에서도 지난해 말 14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3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롯데마트는 동남아시아본부장을 거친 '동남아통' 문영표 대표가 동남아 진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에 진출했다. 몽골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9월 3호점을 개장했다. 이마트는 2015년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을 열었으며 현재 2호점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베트남 법인에 4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문 대통령 “삼성 등 대기업 상생 성과 국민보고 하겠다”

### 포항 방문... “배터리 미래산업의 쌀, 2025년 반도체 추월” “과감한 규제혁신 통해 미래먹거리 투자... 경제 활력 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협력 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포스코,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을 상생 협력의 성과로 국민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둘러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경제 현장 행보는 3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셋째 만이며,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을 되살려 나가는 길은 스마트공장화뿐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됐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진행해 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규제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규제 혁신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 분야에 과감한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으로 상생 도약은 물론, 이른바 ‘확실한 변화’라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서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최정우(왼쪽) 포스코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의 수

집·보관·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GS건설 등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

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열린다는 안팎의 평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

### 위원장에 박형준 전 의원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주목되나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통추위를 구성했다고 인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사진)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방식이나 위원장을 두고 두 당은 온도 차를 보여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한국당이 수용했는



지에 대해 안 사무총장이 “양당이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황 대표의 직접적인 선언은 나오지 않은 채 측근에 의해서만 같음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은 “새보수당에서 말하는 몇 가지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새집 짓자’라는 문구는 새롭게 논의를 안 해도 이미 지난번부터 연석회의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인 거라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새보수당 쪽은 전부 다 동의하는데 위원장을 박형준 교수로 하는 건 당에 가서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건 전체가 의결한 거로 봐도 무리가 없다. 그대로 박형준 위원장 중심으로 통추위가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강경화 “파병, 미국과 같을 수 없다”

### 국회 외통위 긴급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국의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센 솔레이마니 이란 총사령관 제거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으며 호르무즈 파병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로서는 인도 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미국 측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해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을 조정 중이다. 곧 이뤄질 것 같다”며 “이번 회담이 이뤄지면 얘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거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이 반대했음에도 당시 파병을 결정하며 고려했던 것은 국익이었고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이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파병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미군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대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협력센터 1588-8245

# 제로페이 30% 공제... 안경·교복비 자료 직접 챙겨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롭게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30% 공제

### 산후조리원 200만원 세액공제

### 전통시장 공제율 40% 적용

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출처: 국세청

공제항목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제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 공제한다

면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실제로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 항목(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홍 부총리 "제도 개선해 中企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수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새해 첫 현장방문 장소로 환기시스템 수출 중소기업인 힘펠을 찾았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김정환 힘펠 대표와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듀폰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 한국에 구축

### 325억 투자 내년까지 공장 건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공급망이 늘어나 원활한 소재 부품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사가 한국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성윤모 장관이 8일(이하 현지시간) 존 켈프 듀폰 사장을 만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코트라에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신고금액은 2800만 달러(약 325억 원)로 듀폰은 내년까지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듀폰은 1998년부터 천안에 2개의 공장을 가동해 반도체 회로기판용 소재·부품을

생산해왔다. 이번 투자는 듀폰이 반도체 극소형화에 필요한 차세대 제품·기술 개발 및 공급 다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점차 성장 중인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싱가포르로 고려되던 듀폰의 투자 결정지가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코트라가 원팀으로 듀폰과 투자 협상을 적극 진행해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최종 투자처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주로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번 투자 유치로 미국, 유럽연합(EU) 기업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KDI, 10개월 만에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

### 경제동향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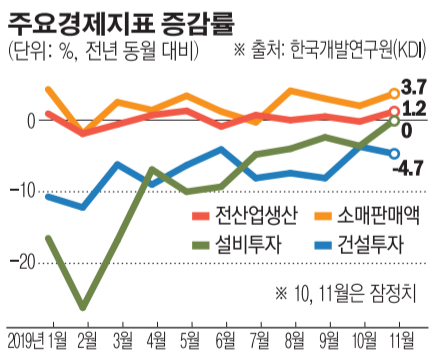
#### 소매판매 등 지표 개선 근거 "기계·건설수주 큰 폭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개월 만에 월간 경제동향의 종합평가에서 '부진 완화'를 언급했다.

KDI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물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부진 지속'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KDI는 이번 경제동향에서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로 소매판매와 서비



사업생산 증가 폭 확대, 경기 선행지표 개선 등을 들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생산 증가 폭은 10월 0.8%에서 11월 2.5%로, 같은 기간 소매 판매 증가 폭은 2.0%에서 3.7%로 확대됐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11월 99.2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트(P)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상으로는 2018년 12월(99.2) 이후 최고치다. 수출입물가비율을 제외한 모든 구성 지표에서 수치가 개선됐다.

KDI는 "국내 기계수주와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심리지수도 상승하면서 향후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KDI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 99.3으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부진이 주된 배경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정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 20만 시대 '성큼'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해 미래차 20만 대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총 11만 3000여

대를 보급했고, 이 같은 목표가 더해지면 누적 미래차는 20만 대를 넘어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미래차 생산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

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국내 신차 8종 실내 공기질 합격했지만...

### 기아차 '쏘울' 톨루엔 수치 턱걸이

#### 권고 기준치 최대치 육박 장기 노출 뎀 두통 등 초래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8개 신차의 실내 공기질이 국내 관리기준에는 충족했으나 기아자동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권고기준 최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쏘울에서 검출된 톨루엔양은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쏘울,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팰리세이드, 베뉴, 르노삼성의 SM5, 쌍용자동차의 코란도C 등 4개 8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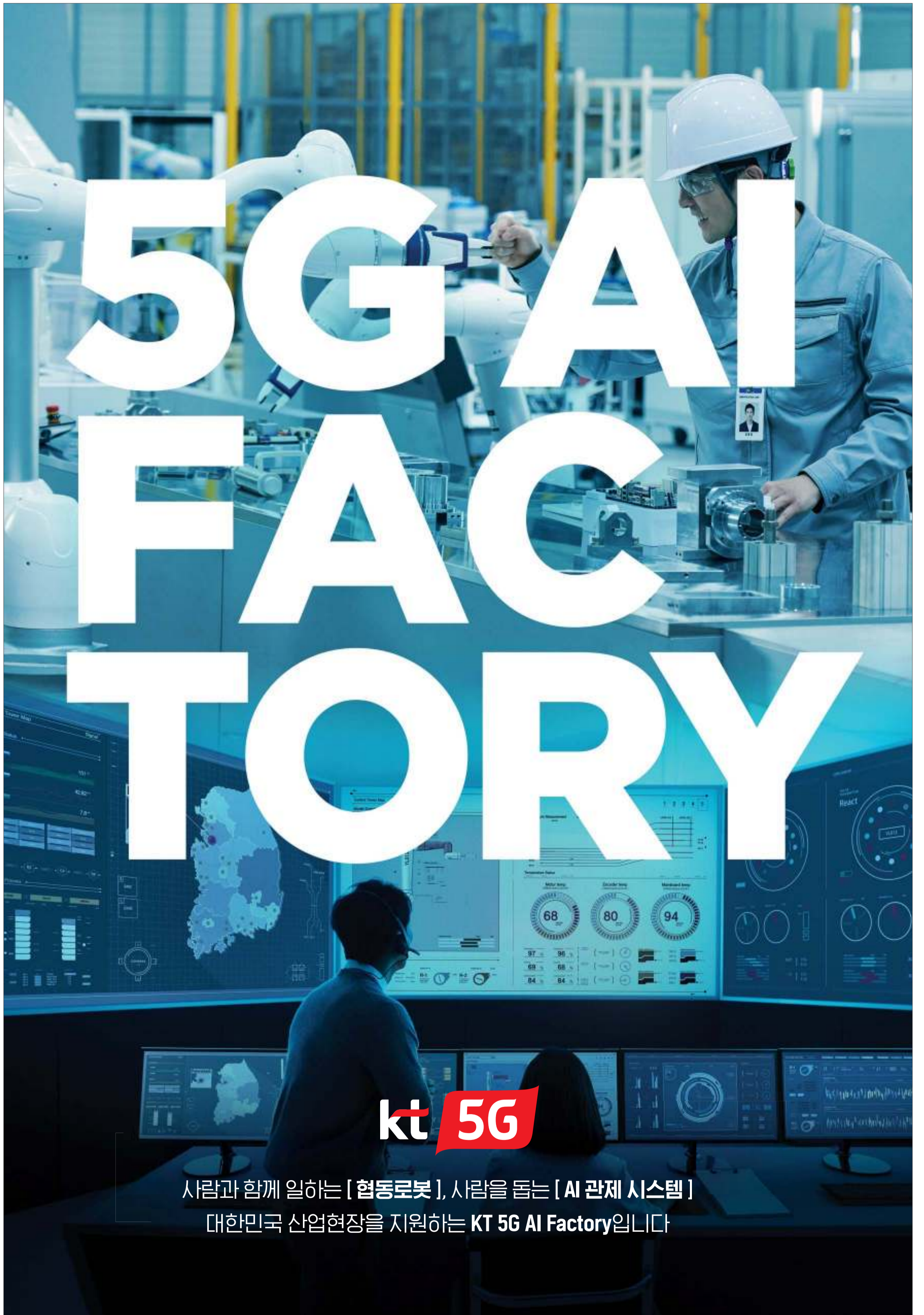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국토부 고시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돼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돼 총 8개 물질을 평가했고 시료 채취 시간이 차량밀폐시간 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아차 쏘울의 경우 톨루엔이 기준치(1000µg/m³)에 거의 근접한 918.5µg/m³로 겨우 합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톨루엔이 260µg/m³만 검출돼도 만성환자의 경우 신경독성에 영향을 있다고 밝혔다. 1000µg/m³는 급성환자의 경우 후각 자극을 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톨루엔은 고농도의 액체나 기체가 직접 몸에 닿게 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눈이 떨리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또는 환각 증세 등 신경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톨루엔의 국내 권고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5G AI FACTORY

kt 5G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 사람을 돕는 [AI 관제 시스템]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KT 5G AI Factory입니다

# ‘짜고 친 보복전’?… 美, 이란 공격 미리 알았다

### 이란크 통해 ‘타격지점’ 사전 경고 백악관, 공격 3시간 30분 전 회의 ‘도발’ 아닌 ‘봉합’ 염두에 둔 듯

전 세계를 극도의 전쟁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일시에 봉합되면서 양국의 진의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이날 새벽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 미국에 어느 기지가 공격당할지를 사전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특정 기지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란으로부터 이날 자정 직전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식 구두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란은 정확한 공격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라크 내 미군 소재지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미국은 3일 이란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했다. 이에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고, 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8일 새벽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7

이란의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 공격 타임라인 ※출처: CNN·뉴욕타임스(NYT)

시기	주요 내용
미국 시간 5~7일	미국 당국, 이란 공격 임박 징후 사전 파악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2시	백악관 핵심 안보 참모, 상황실서 회의 시작
이라크 시간 8일 0시 무렵	이라크 총리, 이란으로부터 공격 구두 통고받아
8일 오전 1시 30분경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5시 30분)	이라크 기지 2곳 미사일 공격
미국 시간 7일 오후 6시 30분	이란 외무장관 “긴장고조나 전쟁 원하지 않아”
공격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란, 스위스 등 외교채널 통해 미국에 메시지 전달
미국 시간 7일 밤	트럼프, 트위터로 “공격 따른 인명피해 없다” 밝혀
미국 시간 8일 오전	트럼프 대국민 담화 “군사행동 대신 제재”
트럼프 담화 수시간 뒤	미국 대사관 있는 이라크 그린존에 로켓 공격

일 오후 5시 30분경이다. 이라크 총리가 이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은 실제 공격 시간보다 약 1시간 전이다. 이라크 측이 미국으로 공격 첩보를 미리 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당국이 자체적으로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봤다. NYT는 공격이 있기 전 이틀간 미군과 정보 당국자들이 이란 탄도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다며, 초기에는 이란 부대의 움직임이 불확실했지만, 전날 오후 들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란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긴장이 높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안보 참모들이 공격 발발 약 3시간 30분 전인 오후 2시경 백악관 상황실에 모이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합류했다고 한다.

미국도 이상기류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을 미리 준비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의 이번 공격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미 보복공격 수위를 곳곳에서 조절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큰 증거가 인명피해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경고했지만 정작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 정부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군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군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미군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도 대규모 피해를 목표로 했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 주재하에 참모들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의 실제 공격 1시간 전에 이라크로부터 공격 첩보를 입수했고, 미국 당국도 자체적으로 공격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양국 간 사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후 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온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정과 제스처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AFP연합뉴스

## “정의 찾아 도망쳤다”는 곤 “법 지켜야 정의”라는 여론

### 도주 후 첫 기자회견서 반박 일방적 주장에 정당성 의문

카를로스 곤 전 닛산·르노 회장이 일본 도주 후 연 첫 기자회견은 2018년 11월 체포에서부터 2019년 12월 도주까지를 담은 드라마의 속편이었다.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곤 전 회장은 몰려든 외신들의 질문에 아랍어, 포르투갈어, 영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며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가끔 손가락을 사용하는 등 과장된 몸짓까지 곁들였다. 닛산과 르노에서 오랜 시간 수장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쇼맨십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다.

기자회견 후 그는 미국 CNBC, CNN과 단독 회견도 했다. 여기서도 그는 도주 경로와 수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악기 케이스에 숨어 도망칠 때 어땠냐”는 유도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자유는 언제나 달콤하다”며 탄소리를 했다. 다만, 도주 방법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에서 도주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의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찾아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베트남, 러시아 같은 공산 정권 치하

에서 도망친 사람을 정의에서 도망쳤다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나는 잃을 게 없었다”고 역설했다.

곤 전 회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는 “도망 비용은 매우 부풀려 보도됐다”면서 “그만큼의 돈은 필요 없다”라고 역측을 일축했다.

곤 전 회장은 도주 이후 내내 자신의 결백과 일본 사법 체계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도 표현 방식에 기교가 가미됐을 뿐, 내용은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일본 내 시각은 부정 일색이다. 그의 주장이 도주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일본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러나 일본 사법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는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판결 비율 99%, 과도한 자백 강요 등 일본 사법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한 일이며, 특히 곤 전 회장의 경우 변호사 없이 심문을 받고 아내와의 접점이 불허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미 증거거래위원회가 보수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해 곤 전 회장 및 닛산에 벌금을 물리고 10년간 공기업 임원 취임을 금지한 것에 대해선 곤 전 회장 정도의 지위에서는 보상 규정이 복잡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NYT는 꼬집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대만 대선 D-1… 차이잉원 재선 유력

### 사실상 中과의 관계 재정립 의미… ‘反中’ 집권당 지지율 높아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 더 나아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개의 제도’ 운명을 가를 중대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만에서 11일(현지시간)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총통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1996년 직선제 도입 이후 7번째로 치르게 되는 총통 선거다. 투표는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같은 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통 선거에는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 차이잉원(신진) 현 총통과 제1야당이자 중국에 우호적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의 한귀위 후보, 대선 단골 주자로 중도 우파인 친민당의 쑹추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차이잉원과 한귀위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1990년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풀이했다. 또 FP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경쟁자들



에 대해 대만의 독립권을 중국에 넘겨주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를 대만인의 정체성을 묻는 국민 투표 성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 현 총통이 재선되면 홍콩과 마카오, 더 나아가 대만과의 관계에서 핵심 원칙으로 지켜왔던 일국양제가 흔들리게 된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새해 들어 금지됐지만 차이잉원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FP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차이 현 총통은 5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기세를 떨쳤던 한귀위 후보 지지율은 약 15%에 그치고 있다. 쑹추위는 5~10% 지지율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변호선 기자 hsbun@

## ‘스트롱맨’ 원했지만… ‘쇼’로 끝난 트럼프 연설

### 대국민 성명서 핵심참모 ‘병풍 도열’… 여론 “대선용”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무력 충돌 대신 추가 제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동 지역의 일촉즉발 전면전 위기가 일단 후퇴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과 억지 수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한 것과 관련한 대국민 TV 연설에서 미군의 대이란 반격 대신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전날 공격에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든 병사는 안전하고 군 기지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군은 어떤 사태에도 준비가 돼 있다. 이란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좋은 것이며 세계에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이란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 대신 제재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경제 제재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며 “이 강력한 제재는 이란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 그의 연설은 11월 대선을 의식한 듯한 ‘연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명확한 출구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이란 군 실세 살해 명령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전쟁에 돌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여론의 불안감을 잠재우느라 애썼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백악관에서 이뤄졌는데,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뒤로 군 고위직 인사들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병

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이는 이란에 반격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정권 내 일치된 방침이라는 점을 호소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건 군사력이 아니라, 제재 압력에 의해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기존의 전략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한시라도 빨리 미군을 철수시킬 생각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고 싶었던 면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 한층 부각됐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대통령 곁에는 노련한 참모나 믿음만한 첩보의 원천, 동맹과의 강력한 유대 같은 자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클버그크래비스로버츠〉

# 신한금융-美 사모펀드 KKR 2억 달러 '맞춤형 펀드' 조성

## 조용병 회장 "대체투자 역량 강화"



글로벌 투자 경험과 역량을 직접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은 첫 번째 맞춤형 펀드의 포트폴리오로 KKR가 독보적인

신한금융은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클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2억 달러(약 2324억 8000만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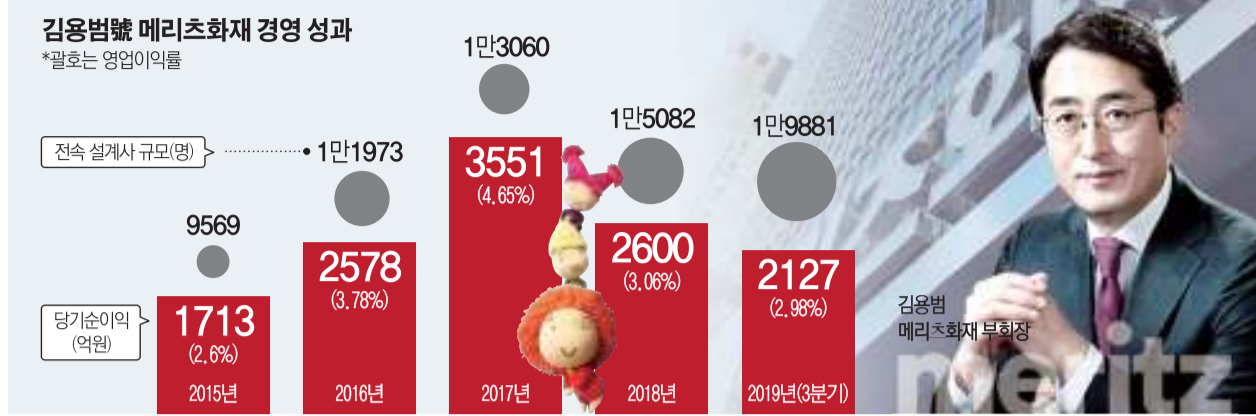
KKR는 197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투자회사다. 전 세계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약 1947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신한금융은 재작년 9월 KKR와 협약을 맺고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KKR가 보유한 다양한 글로벌 투자 상품에 양사가 상호 협의한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신한금융만을 위한 단독맞춤형 펀드이다. 이 펀드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과 달리 자산배분 및 투자 결정 등 펀드 운용 단계별로 양사의 협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KKR의 투자의 사결정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해 KKR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PEF 분야를 선정하고,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통해 은행, 금투, 생명 및 오렌지라이프가 공동 참여하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론칭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안정적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인프라 부문을 선정했으며, 현재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병(사진) 회장은 "그룹의 대체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을 일류로 향상시키기 위해 KKR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김용범 메리트화재 부회장의 '실용 리더십'

# "업계 최고 수준 성과급 주겠다"

김용범 메리트화재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손보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 지속되는 업황 부진으로 성과급을 축소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김 부회장은 2022년엔 업계 1위에 등극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보였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부회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전달된 CEO 메시지에서 "올해 전사 연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을 이 지난해와 비슷한 표준연봉 대비 약 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손보업계 최고의 PS"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도 손보업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보험업계 성과급 규모는 구조적인 업황 부진 등의 이유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또한,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예정되면서 일부 보험사는 이익이 낮아도 성과급 잔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메리트화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한 건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메리트화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50억 원 대비 77억 원(3.8%) 증가

'아메바경영' 통해 조직 탈바꿈  
업계 작년 순익 25% 줄었지만  
3분기 순익 4% '나홀로 증가'

"성과·실용 중심 가치경영 지속  
2022년 매출·이익 1위 도약"

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전년 2조 9162억 원 대비 7166억 원(24.6%) 감소한 2조 1996억 원에 그쳤다. 주요 손보사 중 메리트화재만 유일하게 당기순이익이 상승했다.

김 부회장은 다만 "직원 PS는 앞으로 회계적 이익이 아닌 아메바 이익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조건을 뒀다. 김 부회장은 취임 이후 '아메바경영' 도입을 통해 모든 조직을 성과형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아메바경영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면 자체 분열해 여러 개체로 갈라지는 것처럼 큰 회사 조직을 부문별 소집단으로 나눠 개인이 경영자 의식을 갖고 조직이 굴

러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직의 성과가 뛰어나면 조직에 성과를 배급해 직급이 낮더라도 타 부서의 고위 직급보다도 높은 성과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김 부회장 특유의 성과·실용 중심이 녹아있는 경영 철학이다.

그는 이어 "현 회계제도(IFRS9)는 신계약 매출을 많이 할수록 미래가치는 증가하지만, 단기적 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손해율이 양호한 매출과 그렇지 않은 매출도 단기 손해율이 같은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회계제도에서는 장기 보험 부문이 크게 성장할수록 추가 상각의 부담도 늘어난다. 장기보험 비중이 큰 메리트화재의 경우 향후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추가상각 부담이 줄어 더 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이 밖에도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경영 기조를 지속하면 2022년 매출만이 아닌 이익 규모에서도 1위가 될 것"이라며 "명실상부 손보업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 국민카드, 학원·인강 최대 7만원 할인

### '이지 스테디 티타늄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9일 교육과 자기계발 혜택 특화 상품인 KB국민 이지 스테디(Easy study) 티타늄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학원과 온라인 강의 이용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7만 원이 할인된다. 학원 업종의 경우 1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 원까지 결제금액의 3%가 할인된다. 또 메가스터디와 아발론, 디지털대성, 영단기공단기, 해커스어학원, 시원스쿨, 에듀윌, 박문자 등 온라인 교육사이트 이용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된다.

자기계발을 위해 수영장과 요가, 문화센터 등 취미·자기계발 업종과 서점·문구 관련 업종에서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대형마트·통신요금·패스트푸드 등 생활밀착업종 월 최대 7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취미·자기계발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교육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13.3인치 접이식 OLED를 장착한 레노버의 '싱크패드 X1 폴드'

13인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델의 '오리'

접으면 13인치, 펼치면 17인치인 인텔의 '호스슈 밴드'

9인치 화면 2개가 접히는 MS의 '서피스 네오'

# 노트북도 화면 접는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혁신'

**펼치면 태블릿, 접으면 노트북  
레노버·델·인텔 등 신제품  
CES 2020서 대거 선보여  
삼성전자도 올해 3종 출시 계획**

올해부터 스마트폰에 이어 노트북에도 폴더블(foldable)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는 스마트폰 출시 1년 만에 노트북으로까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며 IT산업의 폼팩터(form factor)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폴더블 노트북의 등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태블릿, 노트북, PC의 경계를 무너

뜨리며 IT 제품 판도를 뒤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노트북이 대거 공개됐다. 레노버는 세계 최초 폴더블 PC인 싱크패드 X1 폴드(ThinkPad X1 Fold)를 내놨다. 이 제품은 경량 합금과 탄소 섬유로 제작됐으며, 가죽 폴리오 커버로 덮여 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컴팩트한 모양부터 완전 평면 디스플레이까지 매끄럽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레노버의 폴더블 노트북은 13.3인치 접

이식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으며 무게는 1kg 미만으로 매우 가볍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PC업체 델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노트북 '오리'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13인치 크기의 화면을 접는 형태다. 펼쳤을 때 태블릿처럼 쓸 수 있고,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는 화면에 키보드를 띄워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다. 델은 또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듀얼' 모델도 선보였다. 듀얼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대신 2개의 화면을 이어 붙인 제품이다. 하나의 화면을 접는 방식이 아니라 2개의

화면을 이어 붙여 화면을 각각 독립적으로도, 연결해서 한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V50 씽큐와 비슷한 형태다. 인텔은 '호스슈 밴드(Horseshoe Bend)'라는 접는 노트북을 공개했다. 펼치면 화면이 17인치, 접으면 13인치에 달한다. 6일 CES 기조연설에서 그레고리 브라이언트 인텔 수석 부사장은 "제조사와 협력해 폴더블 스크린 노트북 양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듀얼 스크린 노트북인 '서피스 네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9인치 화면 2개가 접히는 형태로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거나 노트북처럼 가상 키

보드를 띄워 활용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도 폴더블 노트북 상용화에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총 3개의 폴더블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공개된 '클램셸(clamshell·조개껍데기)', 갤럭시 폴드의 후속 작품인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IT 제품 등이다. 이 가운데 IT 폴더블 제품은 노트북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CES에서는 패널 업체와 스마트폰 업체를 중심으로 폴더블 기기의 전세가 크게 증가했다"며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모바일 기기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현대로템 신임 CEO, 구조조정 나선다

**M&A 전문가 이용배 대표  
플랜트 부문 권고사직 이어  
계열사로 일부사업 매각 검토  
'3년 연속 적자' 탈출 시동**



우유철 전 부회장 역시 임명된 지 1년 만인 지난달 퇴임했다. 9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부터 플랜트 사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해 이달 들어 마무리했다. 현대로템 사업부문은 크게 철도·방산·플랜트 3개로 나뉘며 직원 수는 총 3300여 명이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플랜트 사업부가 가장 먼저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플랜트 사업부 직원 수는 노조를 제외하면 400여 명으로 권고사직 대상은 이 중 △특정(비수익) 부문 직원 △1965년생 이전 출생자 △인사고과 성적이 낮은 직원이다. 위료금은 1년치 연봉으로 알려졌다. 연내 권고사직이 한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플랜트에 이어 나머지 철도, 방산 사업부문도 직원 대상 권고사직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룹 내에서는 최종적으로 현대로템 전체 조직의 20%

가량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현대로템은 지난 한 해에만 14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 18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수년간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대자동차 여파로 공장 건설 등 일감이 줄어들었으며, 플랜트와 철도 부문의 저가 수주, 신규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등도 회사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날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대로템이 플랜트 일부 사업을 현대차그룹 내 계열사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후보로 사업 부문이 겹치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는 현대로템 사업 부문 매각 역시 M&A 전문가인 이용배 대표가 온 이유 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삼성엔지니어링, 알제리서 1.9조 잭팟

**국영 정유 플랜트 사업 따내  
총 4.3조 원 규모 공동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은 알제리에서 대형 정유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8일 오후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랙과 4조3000억 원 규모의 하시 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소나트랙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카멜 에딘 치기 소나트랙 사장 등 각 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공동 수주했으며, 삼성 계약분은 약 1조9000억 원이다. 김기송 기자 kissong@

하시 메사우드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약 11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 처리하는 설비로, 삼성은 설계, 구매, 시공 전 과정을 일괄수주 방식으로 52개월간 수행한다. 소나트랙은 정유, 가스 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어서, 삼성중공업은 향후 연계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상품과 지역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과 수익성 확보가 예상된다"며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주처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연계 수주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KCC글라스, 가정용 PVC 바닥재 리뉴얼

KCC글라스는 가정용 PVC 바닥재 'KCC숲 블루(2.0mm)'와 'KCC숲 옥(2.2mm)'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패턴을 추가하고, 실제 천연 소재와 같은 질감을 부여했다. KCC숲 옥은 총 20가지 디자인으로 나왔다. 나무 패턴과 콘크리트, 천연 대리석과 텍스타일 등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디자인 중 하나인 '피에트라 화이트'는 대리석 무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나무 패턴도 백색도를 개선해 기존보다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렸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KCC숲 블루는 밝은 계열부터 어두운 계열까지 총 5종이다. 이번에 추가한 디자인에는 동조 엠보스 기술을 적용했다. 무늬와 엠보싱을 일치시켜 천연 소재 표면의 질감과 특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KCC숲 블루와 옥은 환경표지인증, HB마크 최우수 등급 등 국내 주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고기능성 및 친환경 요건을 갖춘 바닥재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한국타이어, 유럽 공략 강화 오스트리아 빈에 법인 설립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오스트리아의 빈 슈베하트(Vienna Schwechat)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9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설립된 법인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시장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두 국가에서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이미 유럽 전역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유럽 시장에서 전략적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유창욱 기자 woogi@



## 삼성, 지문 인식 포터블 SSD 'T7 터치' 출시

삼성전자는 포터블 SSD(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T7 터치(Touch)'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포터블 SSD는 낸드 플래시 기반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기존의 외장형 HDD(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대비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며 무게 또한 가볍다. 포터블 SSD 신제품은 5세대 512Gb(기 가비트) V낸드와 초고속 인터페이스 NVMe 컨트롤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외장형 HDD 대비 최대 9.5배, 전작(삼성 포터블 SSD T5) 대비 약 2

배 빨라진 읽기·쓰기 속도를 구현했다. T7 터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급의 지문 인식 보안 기능을 적용해 최대 4개까지 지문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로 해킹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제품(2TB 모델 기준) 무게는 85g에 불과하는 등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2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다. 강화된 성능과 혁신적 보안 기능을 통해 T7 터치는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자세히 보면 보장의 차이가 보입니다



#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갱신형) 무배당

암 진단비 감액기간없이 100%보장  
(암보장 개시일 90일 이후,  
소액암, 유사암 제외)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도  
주계약 보장으로 보장범위 확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본 상품은 20년 만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스페셜암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약필제 2019-03796호 (2019.12.0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19-12-10



〈SK텔레콤 사장〉

# 박정호 “삼성·카카오와 AI 초협력… 사명도 바꾸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통신 경쟁기업 등에 'AI 초협력'을 제안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AI(인공지능) 사업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거티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회사 이름에서 '텔레콤'을 떼고 'SK하이퍼커넥터'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미국 소비자전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박 사장은 사명 변경과 관련해 "SK텔레콤 전체 수익 중 60%가 통신 매출인데, 자회사 매출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통신 이미지가 강한 '텔레콤'이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배경을 설

국내외 라이벌 기업과 협력 AI·모빌리티 등 사업 확장 '종합 ICT 기업' 탈바꿈 의지 통신사 이미지 강한 '텔레콤' 'SK하이퍼커넥터' 변경 검토

명했다.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명은 '초협력'이라는 의미를 담은 'SK하이퍼커넥터'다.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통신분야 외에 자회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ICT 기업 간 협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통신 분야 외에 11번가(유통)·ADT캡스(보안)·티브로드(미디어)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이처럼 모든 사업부문을 아우르며 인공지능(AI),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리스 더 프라임 립(Lawry's The Prime Rib) 레스토랑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모빌리티 등 새로운 ICT(정보통신) 기술을 표방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다.

박 사장은 이번 CES에서 우리나라 국내 전자통신 기업들의 'AI 초협력'도 제안했

마트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3자 연합군 결성을 공식화했다.

박 사장은 "AI는 우리도, 삼성도 필요하다"며 "각사가 가장 뛰어난 역량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 도태돼 플레이어가 아닌 루저(패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과 CES에서 만나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카카오와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AI초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또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아마존 웹서비스) 최고경영자 앤디 제시가 SK텔레콤의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도 긍정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G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과도 전방위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 현대리바트, 중소형 사무용 가구 공략 '박차'

'리바트 하움' 온라인몰 오픈 서울·광주에 전용 쇼룸 마련 'B2C 판매 병행...외형 확대'



현대리바트가 '리바트 하움'을 앞세워 중소형 사무용 가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B2B 위주의 판매망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등 B2C 판매도 병행해 외형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리바트 하움'은 2015년 5~20인 규모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중소형 사무용 가구 시장을 겨냥해 론칭한 '소호(SOHO)형' 사무용 가구 브랜드다. 고급형 사무용 가구 브랜드인 '리바트 오피스'보다 판매가격이 50~70% 낮은 게 특징이다.

9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 인테리어기업 현대리바트는 이날 말 '리바트 하움' 전용 온라인몰 오픈을 시작으로, B2C 판매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리바트 하움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책상·수납장·라운지 소파 등 리바트

하움의 500여 종 전 상품을 판매한다. 현대리바트는 온라인몰 오픈과 더불어 판매 방식도 바꾼다. 기존 판매점(개인 또는 기업이 다양한 가구 브랜드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일종의 편집매장) 중심의 판매는 물론, 가정용 가구처럼 쇼룸(전시 공간)을 통한 판매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송파·경기 용인, 대전, 부산 등 전국 4개 리바트 오피스 직영점의 '리바트 하움' 제품 전시 비

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1인 사업자나 개인 고객을 겨냥한 '1인용 오피스 쇼룸'도 꾸밀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리바트는 리바트 하움의 주요 타깃층을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으로 정하고, B2B 판매망을 넓히는데 주력해 왔다. 론칭 초기인 2015년 100여 개 수준이었던 판매점은 현재 350여 개에 달한다.

현대리바트는 이달 초 100여 종의 리바트 하움 신제품을 추가 출시했으며, 서울 강서, 광주광역시 등에 오픈할 예정인 리바트 오피스 직영점시장에 '리바트 하움' 전용 쇼룸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형일 현대리바트 오피스사업부장(상무)은 "공격적 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리바트 하움' 매출은 지난해 매출(150억 원 수준)보다 60% 이상 증가한 2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전체 사무용 가구 매출도 현재 8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삼성SDS의 CES2020 전시부스. 사진제공 삼성SDS

## 삼성SDS, CES 첫 단독부스 글로벌 시장 개척 속도 낸다

'인텔리전트팩토리' 등 혁신기술 소개

삼성SDS가 'CES 2020'에서 단독 전시부를 마련하고 혁신 기술들을 소개한다. 삼성SDS가 CES에서 단독 전시부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AI, 5G,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흥원표 삼성SDS 대표이사가 CES 2020에 직접 참가해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사를 만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동향을 살펴보고, 파트너십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SDS의 인텔리전트팩토리는 AI·IoT·클라우드 등 IT 신기술 기반으로 제조현장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공유되는 공장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 최적화와 제어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이러한 인텔리전트팩토리에 '에지 컴퓨팅'과 '5G'가 도입되면 수많은 IoT 기기에서 데이터 전송, 처리 지연시간이 줄어 즉각적

인 현장 대처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삼성SDS는 인텔리전트팩토리가 에지 컴퓨팅, 5G와 만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진정한 인텔리전트팩토리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플랫폼과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자체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을 제공해 5G 일반망 환경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삼성SDS의 화이트박스암호는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를 수학적으로 변환시켜 해커가 찾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업무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क्स'로 기업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례를 선보인다.

삼성SDS 관계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CES 2020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LG U+, 멤버십 개편... 등급별 포인트 제한 없앤다

멤버십 등급 분류 기준에 인터넷 등 홈상품 사용액도 포함 'VVIP+' 추가, 총 5개 등급 운영... 포인트 사용처도 확대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사의 멤버십 제도를 개편, 전 등급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오던 멤버십 포인트를 구·신 멤버십 제도와 등급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다양한 제휴처에서 포인트 상관없이 마윽 혜택 누릴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멤버십 제도는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홈IoT 등 5대 상품에 대한 연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

등 총 4개로 나누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VVIP+가 추가돼 총 5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구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 기준이었지만, 새로운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를 비롯해 4개의 홈상품 사용 금액까지 기준을 확대해 멤버십 업그레이드가 보다 쉬워졌다.

LG유플러스는 신 멤버십 VIP+ 및 VVIP+, 구 멤버십 VIP 및 VVIP를 대상으로 선보인 '나만의 콕' 서비스의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나만의 콕'은 멤버십 기본 혜택 외에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다. '콕'별 통합 월 1회,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푸드콕, 쇼핑콕, 교통&레저콕, 데이터선물콕 등 4종이 '라이프 콕'으로 통합돼 현재 라이프콕, 영화콕 등 2종으로 간편화됐다. 작년까지는 한 가지 카테고리만 선택한 후 해당 카테고리 내 주어지는 혜택을 선택해야 했다. 이제는 '라이프콕' 하나로 기존 4가지 카테고리의 제휴사에서 원하는 혜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콕' 내 혜택도 강화됐다. 이달 1일부터 서울스카이 30% 할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40% 할인이 새롭게 추가됨은 물론, 기존 제휴사인 할리스커피의 디저트류, 폴 바셋의 커피류가 추가됐다. LG생물건강샵, LG전자샵은 각각 1000원씩 추가할인돼 총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상·하반기 1회씩 연간 총 2회 영화콕과 라이프콕 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재훈 기자 yes@

## 교원, 모바일 플랫폼 '마켓85' 론칭... 온라인 사업 강화

교원그룹이 큐레이팅 커머스 플랫폼 '마켓85(Market85)'를 론칭하며,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선다.

교원그룹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으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신호탄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마켓85'를 선보인다.

'마켓85'를 주축으로 온라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며, 구몬학습 및 빨간펜, 웰스 등으로 쌓아온 교원그룹 고객의 충성

도를 높이고 브랜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마켓85'는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벗어나 고객 요구와 취향에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큐레이팅 커머스 플랫폼을 표방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토요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 전국 확산되나

### 강동·은평 등 서울 자치구서 하루 앞당겨 의무휴업 지정 마트노조 측 “근로자 의견 무시한 대형마트 편의 봐주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의 설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다. 기존 의무 휴업일(26일) 대신 ‘설 당일(25일)로 대체 지정하기로 한 것. 하지만 대형마트 노조의 반발에 일부 자치구에서 철회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확산 여부에 관심이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대부분 설 다음 날인 26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하지만 이를 명절 당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전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GS리테일 명일점 등 11곳의 준대규모점포(SSM)는 설 당일 문을 닫는다. 강동구청 측은 “조례로 결정된 사항으로 2013년부터 업체와의 협의 통해 의무휴업을 변경해왔다”며 “대규모 유통업소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청도 9일 오후 중으로 이번 설과 관련한 의무휴업일 변경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 “의무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 역시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가 명절 의무휴업일을 변경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긴 점포는 이마트가 트레이더스를 포함해 50여 개, 롯데마트가 40여 개, 홈플러스가 30여 개다.

명절 연휴 기간 중 대형마트의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

무휴업일 직후 명절이 있어 대형마트의 매출에 차질을 줬다.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의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의무 휴업 변경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공세에 이어 규제에 발목을 잡히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로서는 이커머스는 휴일 없이 계속 물건을 판매하는데 대형마트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올해 설 명절은 의무 휴업일 전날에 자리 잡아 매출에 미치는 여파가 적다.

이런 가운데 노조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강서구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변경한다고 공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이마트 가양점, 홈플러스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은 네 번째 일요일(26일)이 아닌 25일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했다. 마트 노조 측은 업체와 지자체 간에 이뤄진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이라며 “명절 당일 고객은 가장 적기 때문에 마트들이 정기휴무를 바꿔치기해서 매출을 올려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하면서 ‘설 당일’ 휴업을 조건부로 철회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구청 관계자는 “원래대로 네 번째 일요일인 26일 휴무로 되돌리고, 다만 노사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업체가 요청하면 설 당일인 25일 휴무를 시행할 것”이라며 “각 업체의 입장을 받아 13일 재공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청은 지난 8일 마트노조 측 요구에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을 거둬들이고, 오산시청도 의무휴업 대체를 철회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올 설엔 명품한우 선물세트

현대백화점이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을 맞아 1++등급 암소 한우만을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선물세트’를 1500세트 한정해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프리미엄 한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현대백화점은 올 설엔 명품한우 세트의 품목과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아모레퍼시픽, CES 2020서 ‘3D 맞춤형 마스크팩’ 선보

### LED 패치 등 K-뷰티 신기술

아모레퍼시픽이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에서 한국 뷰티 업계의 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및 기술 전시회 CES 2020에서 테크 웨스트(Tech West) 베네치안 볼룸(Venetian Ballroom)의 혁신상 수상 제품 쇼케이스에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을 전시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7일부터 10일(현지 시간)까지, 방문객들이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과 LED 플래서를 패치(가칭)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베네치안(Venetian)에 제품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해당 공간에서 선보인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 크기, 피부 특성을 반영해 나만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술이다.

마스크 도안을 실시간으로 디자인해 5분



아모레퍼시픽 3D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 얼굴 계측 모습(왼쪽)과 ‘CES 2020’ 혁신상 수상 쇼케이스에 전시된 LED 플래서를 패치.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안에 나만의 마스크팩을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방문객들은 “최첨단 기술로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진, 나만을 위한 맞춤형 마스크팩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말했다. 5가지 부위에 여섯 가지 처방으로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구축한 관련 서비스는 4월 아이오펜드 플래그십스토어에서 정식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CES 2020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최초로 선보인 ‘LED 플래서블 패치’는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패치 형태의 LED를 피부에 밀착해 사용하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박원석 기반 혁신연구소장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CES 2020을 통해 선보인, 정보기술 분야와 융합한 한국 뷰티 업계의 혁신 솔루션을 전 세계 고객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미선 기자 only@

## 동원F&B ‘펭수참치’ 한정판 출시

### 수익금 일부 기후협약 캠페인 기부

동원F&B는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펭수 컬래버 참치캔 ‘남극펭수참치’ (이하 남극참치·사진) 패키지 한정판을 16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극참치는 참치 마니아인 펭수가 평소 즐겨 먹는다고 밝혔던 참치캔이다. 남극참치는 원래 동원참치를 패러디한 가상의 제품이었지만, 이번 컬래버를 통해 실제 제품으로 구현돼 출시된다.

남극참치 패키지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펭수의 고향인 남극의 환경보호를 위해 W재단의 기후협약 실천 캠페인 HOOXI(후시)에 기부된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로 칼슘, DHA, EPA, 단백질, 오메가6,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특히 남극참치는 일반 참치캔보다 아이돌 뇌 발달에 좋은 DHA 함량을 강화했다.

남극참치 패키지는 남극참치 5캔과 펭수 캐릭터가 그려진 ‘펭수참치’ 랜덤 1종으로 구성됐다. ‘펭수참치’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펭수의 재치 있는 어록이 담긴 총 15종의 디자인 제품으로 구성됐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양장맞은 디자인으로 재미를 더했다.



동원F&B는 남극참치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펭수와 함께하는 튜게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남극참치나 펭수참치 인증샷에 필수 해시태그(#튜게더 #펭수의고향을 지켜주세요)를 달아 SNS에 업로드해 남극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펭수는 EBS 연습생 신분으로 각종 방송과 라디오 출연은 물론, 광고와 패션계까지 종합무진하며 압도적인 화제성과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동원참치와 펭수의 컬래버는 이번 남극참치 패키지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TV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동원F&B 관계자는 “남극참치”는 동원참치와 펭수의 컬래버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고객들로부터 출시 요청이 제일 많았던 제품이었기에 제품 구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설 연휴 호캉스 즐기고, 새뱃돈 챙기세요”

### 켄싱턴호텔 평창 ‘설 연휴 패키지’·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새해 용돈 드림’ 등

몇 년 전만 해도 호텔가 비수기로 꼽히던 명절이 해가 갈수록 성수기로 거듭나고 있다. 명절에 귀성길에 오르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호텔가는 설 연휴 패키지를 출시해 대목을 노린다. 더욱이 이번 설은 주말이 긴 탓에 연휴가 짧은 만큼 해외 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호텔업계는 설 연휴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족단위 고객을 겨냥한 패키지가 눈에 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24일부터 26일까지 체험형 키즈 라운지와 호캉스를 함께 즐기는 ‘웰컴 투더 JW 마우스 하우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웰컴 투더 JW 마우스 하우스 패키지는 호텔 객실에서의 1박, 풍성한 키즈 선물, 초대형 실내 수영장과 키즈풀, 피트니스 공간 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투숙 기간에 호텔 3층에 있는 대형 살롱에서 어린이 놀이 문화 콘텐츠 회사 ‘키즈캔’의 전문 강사들이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준비한 ‘키즈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새해 용돈 드림 패키지’

켄싱턴호텔 평창은 온 가족이 ‘자연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는 ‘2020 설 연휴 패키지’를 23일부터 27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 △그린벨리 조식 뷔페 3인(성인2, 소인1) △스시&바비큐다이닝 디너 뷔페 3인(성인2, 소인1) △실내 수영장&사우나 3인(성인2, 소인1) △전통차 세트 2인&요미요미 키즈 음료 1개로 구성됐다.

설 연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이색 패키지도 출시됐다. 서울신라호텔은 설 연휴 기간 연중 최대 규모의 이벤트인 ‘홀리데이와이너리’를 진행한다. 국

제 행사나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으로 유명한 서울신라호텔의 대연회장 ‘다이너스티’에서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로 구성된 5인조 팝페라 공연이 열린다. 또 10여 종의 와인과 마리아주 안주가 마련된다. 특히, 2020년 ‘쥐의 해’를 기념해 쥐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저트와 2020년 문구를 새긴 마카롱이 준비돼 새해 분위기를 더한다.

‘홀리데이와이너리’는 24~26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린다. 패키지는 △디럭스 룸(1박) △‘홀리데이와이너리’ 입장 혜택(2인) △체력장(Gym) 및 실내 수영장(2인)으로 구성된다.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에서는 새해를 맞아 ‘새해 용돈 드림’ 객실 패키지를 1월 한 달간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이용 고객들에게 노보텔 엠베서더 독산 식음업장(가든테라스, 휘닉스)에서 쓸 수 있는 새뱃돈 2만 원(세금 포함)과 뷔페 레스토랑 가든테라스의 조식 혜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조식 혜택은 성인 2명과 16세 이하 자녀 2명까지 총 4인이 이용할 수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자본규제〉

# “세계 선진화·NCR 개선”... 나재철 회장 ‘혁신 포문’

## 금투협 신년 기자간담회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금융투자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재철 신임 회장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부가 가치·글로벌 산업으로 변모시켜 국민경제 내 역할을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 회장은 2일 취임 이후 첫 행보로 ‘협회 혁신 TF’를 구성했다. 내외부 인사 배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협회를 △회원사 중심의 효율적 조직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소통·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의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구성’ 첫 행보... “회원사 중심 효율적 조직으로”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 증권사 IB 역량 강화 지원  
“공모형 실물간접투자상품 확대...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

그는 “협회장으로서 정부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에 대한 회원사의 신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양자 모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협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 다양한 회원사가 있는 만큼 특정 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있는 업무 처리를 강조할 계획”이라며 “기존 회의체에 추가해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해 면밀히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

원 방안도 밝혔다. 나 회장은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IB(투자은행)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자본규제(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 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 및 사모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정책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와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으로 협회 정책에서 운용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겠다”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헤지펀드·부동산펀드

지수 개발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소형운용사의 내부통제 지원 △내부통제 관련 설명회 △미들·백오피스 양성교육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자본시장 세계 선진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 회장은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의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회원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실적 개선·경영 효율 ‘두 마리 토끼’... 위기 해결사 역할 톡톡

### 사모펀드 M&A시대 ㉠과 ㉡

#### ㉡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

사모펀드(PEF)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당당한 플레이 메이커가 됐다. 자금 해결사, 백기사, M&A주체 등으로 활동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PEF는 676개(2019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3개월 전보다 40개가 늘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 약정액도 81조5423억 원에 달했다.

규제 완화를 틈타 ‘조국 펀드’처럼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활용되거나 공직자의 직접투자 규정을 회피하는 악

용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사모펀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핀셋 규제를 주문한다.

◇성장과 경영효율 ‘두 마리 토끼’ 잡아 = 전문가들은 국내 PEF가 양적 성장만큼이나 질적 성장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행보나 경영난에 처한 회사를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시키는 사례가 나오면서 PEF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사모펀드가 공시 의무에서 면제

PEF 투자 기업 90개사 분석  
매출 1470억→2300억 경증  
고용·총자산회전율도 증가

공직자 직접투자 규정 회피 등  
전문가들 악용 우려 목소리  
“규제는 하되 본질 훼손 안돼”

돼 투자처나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사모펀드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도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로 일자리의 재배치 생산성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과 경영효율이란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5~2014년 PEF가 투자한 기업 90개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투자기업 매출은 인수 당시 평균 1470억 원에서 매각 시 2300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 효율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고용은 423명에서 443명으로, 총자산 회전율은 0.5회에서 0.6회로 늘었다. 다만 적극적 경영 참여보다는 소극적 재무적 투자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규제는 하되 본질 훼손 말아야 = PEF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코링크 PE의 사건을 두고 특관층의 탐욕에 PEF가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개인이 수십억 원 이상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펀드의 대주주를 이루고 있는 PEF를 선별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IB 업계 한 임원은 “PEF 등 사모펀드가 모험자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가 아니라 네거티브식 제도 개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재미

공감

위로

## BRAVO My Life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 “유가 상승 우려...유동성 위험 커”

# 오이솔루션 ‘5G 대박’ 보인다

## 한계기업 돋보기

### 흥아해운

새해 들어 해운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년째 적자 기초에 빠진 흥아해운이 실적 개선과 재무 정상화를 이룰지 이목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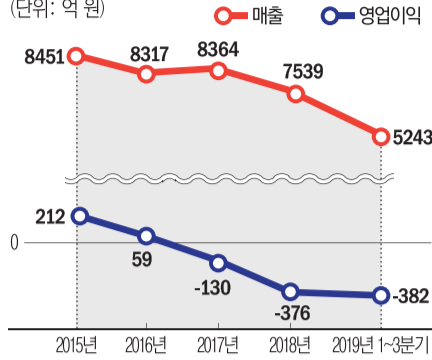
흥아해운은 1961년 설립된 아시아 지역 내 컨테이너 화물 및 액체 석유화학제품 해상운송 업체다. 1976년 해운업체로는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흥아해운은 2015년까지만 해도 연결기준 매출 8000억 원대에 2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적은 규모지만 현금배당을 할 정도의 재무 여력을 갖췄다. 당시 고성장하는 동남아 해운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척의 선박 인수를 진행했다. 반면 이와 비례해 부채비율이 2014년 296.2%에서 2016년 398.0%로 늘어나는 등 재무적인 부담은 다소 커졌다.

공격적인 경영은 이듬해 악수로 돌아왔다. 글로벌 대형 해운사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운임 경쟁에 불이 붙었고 차진게 임 양상이 펼쳐졌다. 흥아해운은 2016년까지 규모는 줄었지만 59억 원의 흑자기조를 유지했지만 2017년 130억 원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300억 원대 영업손실이 계속됐다. 이 기간 매출도 8000억 원대에서 7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흥아해운은 수년간 발생한 손

### 흥아해운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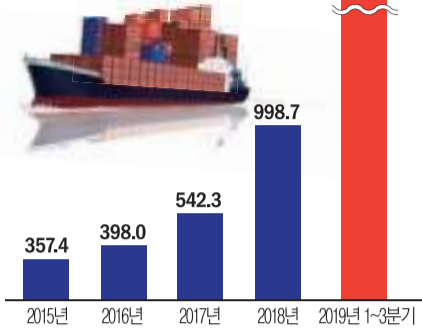
### 지난해 1~3분기 부채율 3000%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 2000억 업황 부진·연료비 부담 이중고 자구안 마련·정책적 지원 필요

손실에 잉여금을 모두 까먹고 2018년 일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작년 진행된 자본감소로 잠식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자본 확충이 미흡해 3분기 말 부채비율이 3039%에 달한다.

흥아해운은 컨테이너선 사업을 처분하는 한편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도래하는 차입금이 2000억 원을 넘는 데다 컨테이너 사업 분할에 따른 사업 기반 약화로 흥아해운의 유동성 위험 대응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전명훈 연구원은 “컨테

### 흥아해운 부채비율 추이



이너선 사업 매각으로 회사 매출이 대폭 축소되는 데다 2013~2017년 해당 사업의 실적 저하를 완화했던 탱커선 사업이 2018년 유가 상승에 적자로 전환했다”며 “업황 부진과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등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고, 아울러 자구계획과 정책적 지원 등 다각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탱커선이 적자이기 는 하지만 작년 하반기 적자폭을 줄였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업계 자기자본이익률의 3배 “국내 넘어 해외 수주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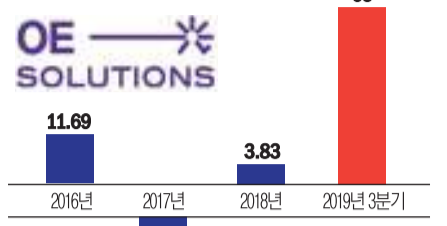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오이솔루션의 자기자본 이익률(ROE)이 실적 성장 속에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7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오이솔루션의 ROE는 2018년 3.83을 거쳐 지난해 3분기 65.0까지 올랐다. 4분기엔 살짝 주춤하며 최종 50.71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 역시 코스닥 IT H/W(하드웨어) 업종 평균(14.58) 전망치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ROE는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을 나타내는 만큼 기업의 실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자전기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오이솔루션은 지난해 3분기 연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1.62% 증가한 1601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462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365억 원으로 무려 5029.22% 급증했다. 실적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5G 광트랜시

### 오이솔루션 ‘자기자본이익률’ 추이



버의 수요 증가가 뒷받침이 됐다. 특히 고객사들의 5G 투자가 점차 커지는 만큼 시장이 바라보는 향후 전망도 좋은 편이다.

견고한 실적 속에 최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269억 원의 자금 조달을 마쳤다. 오이솔루션은 광소자 생산설비 확대와 트랜시버 개발 및 사업 운영비에 사용할 방침이다. 호실적을 견인한 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밝힌 만큼 향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해외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5G 투자 현황이 아직 초기인 점을 중장기적으로 오이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인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CB 상환 위해 ‘유증’하는 코스닥 기업

### 이노인스트루먼트 379억 규모 3자 배정 아닌 일반 공모 방식

코스닥 상장사 이노인스트루먼트가 실적과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엔 사채 상환을 위해 주주들의 손을 빌리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78억 원, 59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실적 악화 속에 재무지표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2018년 4월 3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CB를 발행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233억 원가량이 유동성 전환사채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2018년 300%를 넘어섰던 유동비율은 99.54%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지난 달 3회차 CB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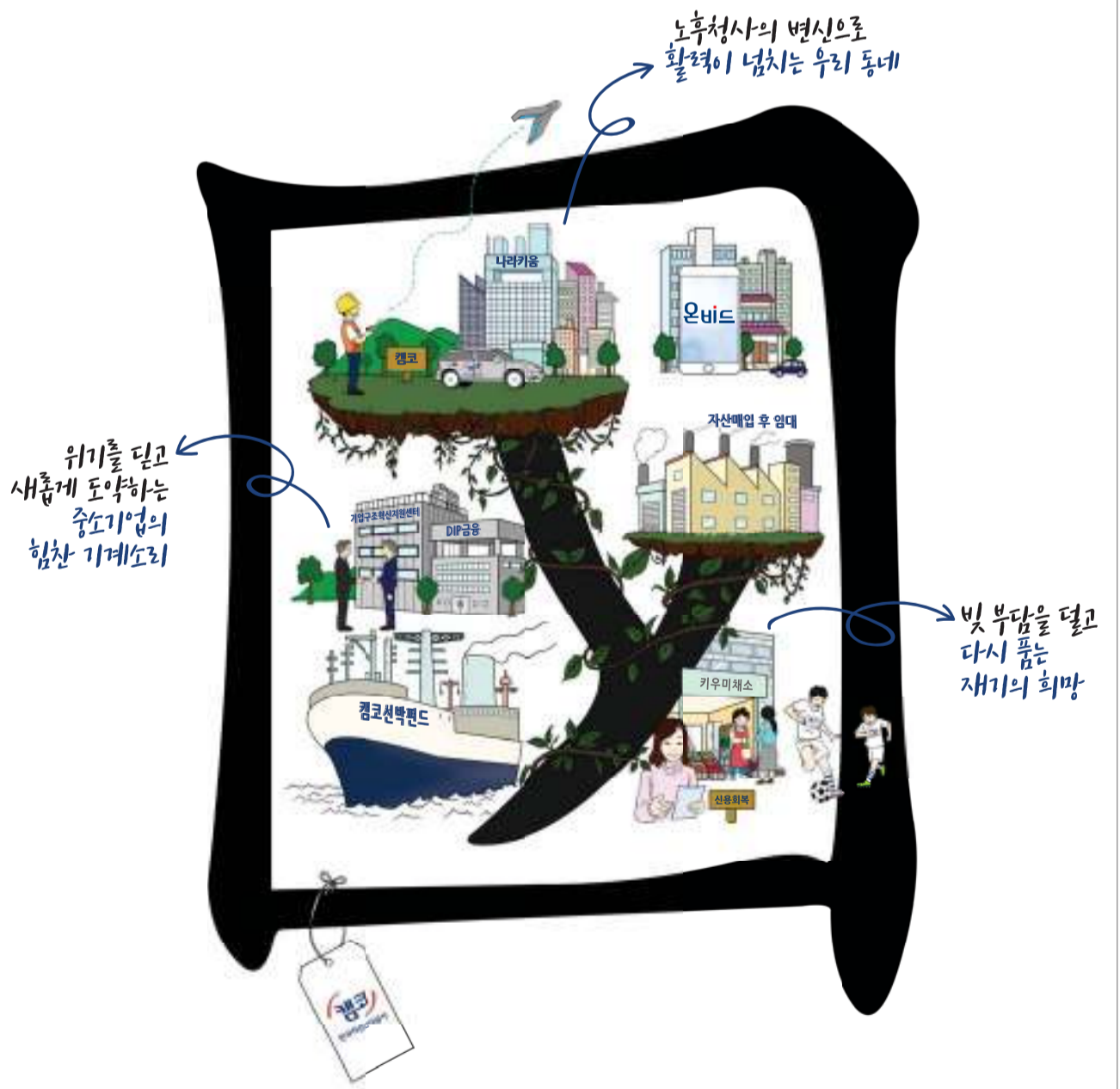
달하기 위해 37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특수관계인 또는 외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3자배정 방식이 아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주가는 유증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 28%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사 측은 유증 결정과 관련해 “최대주주는 이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해 약 20% 수준으로 청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조봉일 전 대표가 지분 과반(59.86%)을 보유 중이다. 이번 유증은 일반 주주들의 할당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조 전 대표의 지분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수관계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증자 후 조 전 대표의 지분율은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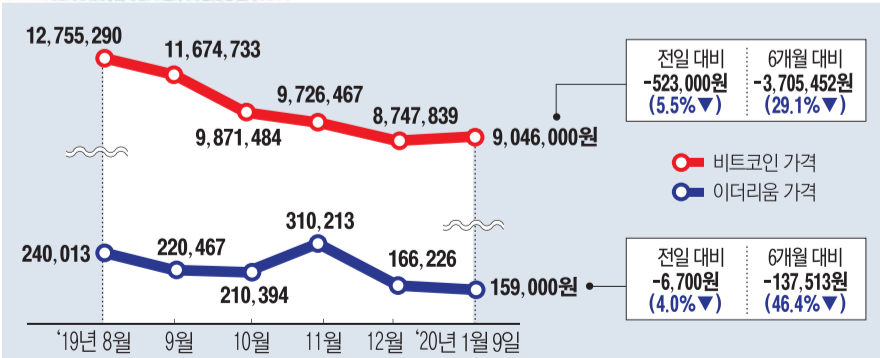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www.kamco.or.kr

## 빗썸 지수 (2020년 1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71,100	-9,400 (3.4%▼)	모네로	64,700	-2,100 (3.1%▼)
리플	234	-11 (4.5%▼)	비트코인골드	6,765	-120 (1.7%▼)
라이트코인	51,600	-3,250 (5.9%▼)	이더리움 클래식	5,805	160 (2.8%▲)
대시	60,150	-2,450 (3.9%▼)	퀀텀	1,895	-90 (4.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연초부터 정비사업 수주경쟁 ‘후끈’... ‘슈퍼 甲’ 된 조합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8곳 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나서  
고강도 규제 이어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건설사 ‘울상’

“사업성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조합원들의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일감을 두고 경쟁하다 보니 건설사들 간 물고 뜯는 수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과정에서 조합의 위상은 더 높아져 ‘갑’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연초부터 선정에 나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쏟아지고 있으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기존 건설사와 ‘불협화음’으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데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와 조합 간 팽팽한 ‘힘겨루기’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갈현1구역에 비롯해 올해 상반기 중 최소 8곳의 서울 정비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7일 시

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던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도 11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18일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다.

홍은13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입찰에는 HDC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작년 11월 1차 입찰에 이어 두번 째로 유찰되면서 조합은 시공사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2월 중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도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7일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5월 중순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포주공1단지과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은평구 신사1구역 등도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앞둔 주요 정비사업장

사업장명	입찰 건설사 및 관심 건설사	일정	준공 후 가구수	공사비
홍은13구역	HDC현대산업개발(입찰)	2월 중 총회	8277가구	3000억 원
한남하이츠	현대건설(입찰), GS건설(입찰)	1월 18일 총회	7907가구	3400억 원
갈현1구역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9일 입찰 마감	4116가구	9182억 원
반포3주공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등	4월 초 총회(예정)	2091가구	1조 원
한남3구역	현대건설, GS건설, 대림건설	2월 7일 입찰 공고	58007가구	2조 원
방배삼익	대림산업	올 상반기 3차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환 여부 결정	7217가구	2314억 원
신반포 15차	삼성물산 등	1월 설명회	6737가구	2098억 원

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 간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던 신반포21차 사업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이 참석했지만 조합이

터무니없이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자 건설사들이 참여를 망설인 것이다. 이에 신반포21차 조합은 사업비를 낮춰 이르면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나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은 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공사 교체도 시도하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포3주공 조합이 특화설계, 공사 범위, 공사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 다수의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갈현1구역 조합도 도면 누락과 이주비 제한 등을 문제 삼아 현대건설의 시공사자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인 한남3구역. 연합뉴스

격을 무효로 돌렸고, 이에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다만 현대건설은 패소했다.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합들은 서둘러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근 조합들이 재입찰을 추진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일감이 부족한 건설사로서는 수주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최근 건설사들도 정부의 각종 규제에 낮아진 정비사업 수익성 때문에 예전처럼 조합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박준규 · 고명환 · 신정만 · 장희재 · 윤원재 · 임진유 · 이유선 · 이호준 · 이서경 · 박종찬 · 서은교

## 박준규 · 고명환 이 들려주는 체홉의 단편 소설

체홉, 여자를 일러다.

2020. 1. 7(화) ~ 2. 2(일)  
대학로 자유극장

## ‘미분양 오명’ 벗은 검단을 올 2600가구 더 나온다

‘검단파라곤’ 1순위 경쟁 8.6대 1  
인천 새 물량 크게 늘어 낙관 어려워

한때 ‘미분양 늪’으로 불렸던 인천 검단신도시에 올해 아파트 2600가구가 분양된다. 올해 마수결이 분양 단지가 지난해와 달리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분위기반전을 꾀했지만, 올해 인천 분양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낙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올해 총 4개 단지, 2600가구가 분양된다. 우미건설이 3월 ‘검단신도시 우미린2차’(436가구)를 선보이고, 9월엔 1234가구 규모의 우미린 단지를 추가로 내놓는다. 같은달 ‘검단 금강펜테리움’이 각각 483가구와 447가구 분양된다.

지난해 검단신도시 주택시장은 크게 널뛰었다. 상반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던 분양단지의 미분양분이 지난해 8월 수도권 교통 개선책과 분양가 할인 혜택으로 대거 팔려나갔지만, 하반기 공급 폭탄에 미분양은 또다시 슬금슬금 불어났다.

실제 지난해 검단신도시에서 나온 12개 분양 단지 중 1순위에선 청약 마감에 성공한 곳은 단 4곳 뿐이지만 이중 3개 단지가 하반기 공급 폭탄 속에서 모집 가구수를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예정물량

서구 당하동	가구수	분양일정	건설사
검단신도시우미린2차(AB12)	436	2월	우미건설
검단신도시우미린(AA8, AB1)	1234	9월	우미건설
서구 원당동	가구수	분양일정	건설사
인천검단금강펜테리움(RC4)	483	9월	금강주택
인천검단금강펜테리움(RC3)	447	9월	금강주택

채웠다. 올해 검단신도시 마수결이 분양으로 나온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8.6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서 778가구 모집에 무려 6725명이 몰렸다.

그러나 올해 인천에서만 지난해보다 6000여 가구 많은 4만40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에서 1만 가구, 인근 부평구에서 1만 가구가 쏟아진다. 청약 대기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인천 계양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대기 수요가 흩어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던 검단신도시는 주변 지역의 공급 폭탄이라는 약재를 연이어 맞게 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3기 신도시 영향은 물론 올해 인천 서구와 부평구에서만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나올 예정이어서 청약시장을 낙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주택 규제 ‘반사익’... 오피스텔 값 계속 올라 역세권 중심으로 지난달 0.18% 상승...5개월 연속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 규제 강화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교통 여건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의 몸값 상승세가 빠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18% 상승했다. 8월부터 다섯 달 연속 상승세다.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3분기보다 0.4% 올랐다.

서울 오피스텔 가운데서도 특히 인기가 좋은 것은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서울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보타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22㎡형이 2억1000만원에 매매됐다. 박종화 기자 pbell@



〈SPC 회장〉

# ‘배임 혐의’ 허영인 1심 뒤집고 2심 무죄

## 재판부 “고의성 인정 안돼”

베이커리 업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영인(71)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허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2012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허 회장과 임직원들이 상표권 지분의 소유자를 이 씨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시 회사는 이 씨에게 점포지원비를 지급하는 대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이 상표권 지분 소유자가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이 씨에게 점포지원비를 지급한 것을 위법하

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상표권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이 씨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 및 출원 등록 관리에 관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상표의 지분권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상표의 출원등록 이전 경위를 보면 이 씨는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의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2012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 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종용 기자 deep@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CES 2020이 열린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엑스포를 서울관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첨단 IT 도시 서울, CES 개최에 최적”

## ‘CES 2020’서 기조연설 도시 전역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시티 노력·성과 홍보 사피로 CTA 회장 “긍정적”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계 무대에서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했다. 더불어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의 서울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시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스페셜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울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혁신”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

지 않고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차 산업 기술을 어떻게 도시 행정에 접목시켜 제도화할 것인지,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스마트시티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례없이 도시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깔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 중인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 전역에 수천 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박 시장은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제리 사피로 회장과 만나 서울시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사피로 회장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중국 상하이 두 곳에서만 열리는 CES의 서울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은 MICE 유치 세계 3위 도시로 각종 전시 시설과 호텔, 문화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타 도시의 모델이 될 만한 최첨단 정보기술(IT) 도시인 서울은 CES를 개최하기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피로 회장은 “서울을 이미 여러 번 방문해 잘 알고 있다”며 서울의 컨벤션 시설과 공항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다.

사피로 회장은 이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박 시장의 CES 서울 유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진희 기자 jh6945@



유커 5000명 인천에... 사드 이후 최대 규모 중국 건강웰빙식품 판매기업 ‘이웃사랑(滄堂)’의 임직원 5000여 명이 9일 오전 인천 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웃사랑 2020 한국연회’에서 주요 내빈들의 등장에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단일 행사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최대 규모의 중국 관광객이다. 연합뉴스

# 입 굳게 다문 윤석열, 정권수사 이어갈 듯

## 측근 물갈이에도 사의 가능성 낮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킨 법무부의 인사 태풍이 휩쓸고 간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오전 9시 20분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전날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소처럼 전용차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은 대검 정문을 통과한 뒤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평소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도 이번 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이며 기자단에 반박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던 검찰은 저녁께 인사가 발표되자 침묵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 감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지휘 라인을 뿔뿔이 흩어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등도 자리를 옮기는 등 7명의 참모진(검사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수족이 모두 잘려나갔다. 이번 인사로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의 힘겨루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평소 “수사로 말하겠다”던 윤 총장의 성격을 고려하면 인사와 관계없이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서울시와 동행한 혁신기업... 드론·발레 주차 기술 뽐내

## 르포 CES 2020 ‘서울관’

### 글로벌 기업 바이어들 큰 관심 “서울 네임밸류로 브랜드 수혜”

서울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대거 전시했다. 특히 전 시장을 찾은 글로벌 기업 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선정하고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인정한 20개 혁신 기업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자사 기술과 제품을 세일즈했다. 이들 중 다수는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이거나 서울산업진흥

원, 서울디지털재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지원을 받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CES ‘서울관’ 내에 조성된 부스에서 참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혁신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 혼자 왔다면 각광받지 못했을 텐데 서울시 네임밸류로 브랜드 수혜를 입는 동시에 제품 우수성까지 알리는 시너지를 냈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씨드아이의 임진구 대표는 “비행기 드론 형태에서 파생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우리 제품은 일반 드론의 비행시간(20~30분)과 비교해 최대 비행 시간이 두 시간에 달하고 속도도 3배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활용돼 항공지적측량, 구급기나 헬기를 공급하는 배송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큐브에이아이는 AI를 통해 자율 발레

주차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최동호 큐브에이아이 매니저는 “주차장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아 맵을 만들고 그 맵을 중앙 관제시스템을 통해 차가 어디로 운행하는지 알 수 있다”며 “AI가 주차공간에 가는 것을 계산하고 주차자는 바닥의 LED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게 자율 발레 주차시스템이다. 그는 “비싼 센서 수백 개를 부착하지 않고도 카메라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큐브에이아이는 SK텔레콤이 주관하는 ‘Future Mobility’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고 T맵에 주차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혁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힘을 실어줬다. 박 시장은 AI로 목소리를 인식하는 업체 네오사피엔스 부스를 찾아 직접 시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진희 기자 jh6945@

# 유튜브로 돈 버는 교사들, 교장 허가 받아야

## 표준지침 20일 시행

앞으로 교사 등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일부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시행된다.

앞서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인방송활동 공무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는 교사가 1248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75명, 국가공무원 43명 등 순이었다.

표준지침에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허용하되 수익 활동과 연계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른 직군에 비해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들은 이 같은 표준지침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교육 등 순수한 목적의 활동마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표준지침안에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검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 돌도끼에서 노키아까지 핀란드 '갬성' 찾아 1만년 전으로

주말에 어디 갈래? 국립중앙박물관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000년' 특별전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흔히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고 한다. 굳이 화려한 색깔을 넣지 않아도, 거창한 장식품이 더해지지 않아도, 단조로운 듯하지만 멋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 떠오르는 설명이다.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실용적인데, 군더더기 없는 '갬성' 말이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간직한 디자인이 1만년 전 핀란드인들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믿어지는가.

국립중앙박물관은 핀란드의 물질문화와 디자인의 가치를 탐구하는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000년'을 21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개최된 핀란드국립박물관 특별전 '디자인의 만 년 전의 세계 첫 순회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유럽의 역사·문화를 소재로 전시를 마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핀란드 디자인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전시로, 핀란드국립박물관과 함께 마련했다. 전시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공동 기획자 건축가 플로렌시아 콜롬보와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 빌레 코코넨이 한국 전시의 재구성하고 원고 작성 등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번에 소개되는 전시품은 고고학 유물에서부터 민속품, 현대 산업디자인 제품, 사진과 영상 등이 망라됐다.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에 들어서면, 돌도끼와 노키아 휴대폰, 나무썰매와 현대스키, 곰의 뼈와 현대 디자인 의자가 나란히 놓여있다. 이색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조합은 인간과 물질, 그리고 사물과 기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에 온 핀란드 자료는 140여 건이다. 여기에 한국 유물 20여 건을 더해 유라시아 대륙 서쪽과 동쪽 나라 문화를 비교하도록 했다. 핀란드 전시품에는 하얀색, 한국문화재에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었다. 전시는 크게 6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1



'핀란드 디자인 10000년'전에 다양한 의자들이 진열돼 있다. 앉는 부분과 등받이가 90도로 이어진 의자의 원형(왼쪽)이 에어백 의자, 안락의자 등으로 변형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부 '인간은 사물을 만들고, 사물은 인간을 만든다'는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은 물질을 탐구하면서 더 다양한 지식을 얻었으며, 물질은 인간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진화는 기술 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재료에 대한 탐구를 통해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직관력을 키우게 됐다. 이 과정은 인간과 물질이 만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2부 '물질은 살아 움직인다'는 물질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다룬다. 여기에서는 인간도 물질의 일부였음을 일깨운다.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는 끊임없는 연구와 발견, 그리고 착취를 동반해왔다. 물질의 가치는 시간과 문화에 따라 계속 진화해왔다. 그러나 어떤 물질은 시간적 거리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3부 '사물의 생태학'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 과정을 살펴본다.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을 숭배하고 심오한 지식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1만년 전 핀란드인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어 인간과 물질 간의 영향 '사물과 기술' 관계 성찰



을 터득하면서, 인간은 하나의 공통된 물질문화와 기술전통, 그리고 독특한 식단을 갖게 됐다. 사냥과 채집, 사슴방목, 경작은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탄생한 생계 시스템이다. 생계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물품들은 핀란드인의 정서뿐 아니라 핀란드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풍부한 관점을 제공한다.

4부 '원형에서 유형까지'에서는 시대가지나도 변하지 않은 '원형'과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는 '유형'의 속성을 제시한다.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제작 방식들 속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균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뿌리 깊은 원형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객들은 비교 제시된 다양한 전시품을 보며, 하나의 사물이 가진 원형과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형들을 비교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다.

5부 '초자연에서 탈자연으로'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신앙 체계라는 관점에

서 살펴본다. 과거에는 초자연적인 대상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다양한 상징체계와 주술, 제의(祭儀)로 표출됐다. 이에 비해 현대인들은 새로운 맥락에서 디지털 세계라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초자연과 탈자연의 이야기 속에서 제시될 것이다.

6부 '사물들의 네트워크'는 사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사물은 격리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기능한다. 예컨대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쌓기와 겹침으로 만들어진 사물의 응집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고안들과 모질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편 이번 한국의 특별전에서는 주요 전시 개념인 모듈성을 활용한 진열장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전시 개념을 입체적인 전시 공간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체험공간도 있다. 전시실 입구의 프롤로그 디지털 존에서는 마치 우주의 한 공간에서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듯한 흡입력 있는 영상이 제시된다. 또 원목으로 만든 사우나 공간은 핀란드의 자연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독특한 휴게 공간으로 연출된다. 대형 오로라를 연출한 영상이나 블록 형태의 시벨리우스 오디오 부스 등도 연말전시 박물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엘리나 안틸라 핀란드국립박물관장은 "핀란드인들이 사물을 창조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핀란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녀왔다"며 "이번 전시는 매우 핀란드적인 특징을 선보이면서도 동시에 그 접근 방식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5일까지 서울에서 전시한 뒤 국립김해박물관(4월 21일-8월 9일), 국립정주박물관(8월 25일-10월 4일) 순회전도 예정돼 있다. 관람료 3000원.

김소희 기자 ksh@

## 알아두는 여행 tip '2020 새해를 위한 세신' 온천 여행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밝았다.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새롭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자.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이 시작하기 위한 '새신'을 위해 '세신'하러 온천·사우나 명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은 '새신 여행지'로 샤먼, 베이더우, 블라디보스토크 세 곳을 추천했다. 트립닷컴은 "모두 비행시간이 짧고,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부담 없이 떠나기에 제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샤먼'이 품은 중국 최대 규모 온천 테마파크 = 샤먼은 중국 남부에 있는 해변 도시다. '중국의 지중해'라 불릴 만큼 명성이 자자한 휴양지다. 아열대 기후에 속해 연중 날씨가 따뜻하며,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다.

## 지난해 묵은 것들 온천에 흘려버리자

중 '샤먼'·대만 '베이더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비행 시간 짧은 '세신 명소'

겨울에 샤먼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일월곡 온천'은 필수 코스다. 이곳은 중국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온천 테마파크로, 100여 개의 노천탕과 40여 개의 콘셉트를 보유한 테마탕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보통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돼 야경과 함께 온천을 즐길 수 있다.

◇핫한 타이베이에도 온천이 있다 = 타이베이의 인기는 2020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중 따뜻한 날씨, 2시간 30분의 짧은 비행시간, 다양한 관광



중국 샤먼의 일월곡온천. 사진제공 트립닷컴

명소와 맛집 등을 자랑하는 타이베이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온천 명소인 베이더우도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베이더우는 타이베이와 가까운 온천 마을이다.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 대만에는 수많은 온천이 있는데, 특히 유황 온천으로 잘 알려진 베이더우는 많은 여행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타이베이 시내에서 지하철(MRT)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해 훌륭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대만의 대표 온천답게 온천욕을 만끽할 방법

도 다양하다. 공공 온천탕, 노천탕부터 5성급 호텔, 리조트에서 즐기는 개인탕까지 여행지 전역에 걸쳐 온천 시설이 즐비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에서 온천욕 즐기 =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도 불린다. 2시간 30분 이내의 짧은 비행시간과 저렴한 물가로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일명 '가성비 여행지'로 통한다.

새해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 떠난 여행이라면 러시아식 전통 사우나로 불리는 '반야' 체험이 필수다. 반야는 겨울철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한 러시아인들의 문화로,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독채에서 사우나를 즐기며 개운하게 피로를 풀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산문집 '단정한 기억' 낸  
유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국내에서 시집 해설을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진 유성호(柳成浩·56) 한양대학교 교수가 첫 산문집 '단정한 기억'을 출간했다. 규준이 정해진 딱딱한 논문과 평론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글을 쓰며 모처럼 그는 '자연인 유성호'가 간직한 섭렵과 경험의 기억들을 가지런히 펼쳐 보였다.



**“추억은 꿈꾸는 기억... 그 기억이 생을 아름답게 해”**

존재했던 소중한 '기억'  
그것이 사라졌다는 '실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

나이 들수록 미련과 집착으로  
여생 보내는 이들 안타까워

'나 때는 말이야...' 이제 그만  
존경받는 어른 되기 힘든 만큼  
되어볼 만한 가치 있지 않나요?

유 교수는 최근 한 칼럼을 통해 “산문”은 진솔한 고백을 통한 자기 확인을 욕망하면서, 특정 토픽에 대해 독자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이번 산문집을 펴내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오래된 글까지 모았더니 하나의 범주로 묶긴 어렵더군요. 복잡한 장르의 글들을 정리하며 목표로 삼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어느 시기에 내가 어떤 경험과 생각을 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또, 살면서 저를 위해 애써준 분들이 쉽게 볼 만한 책을 선물하자는 거였죠. 그동안 평론 전문 서적을 더러 냈는데, 일반인에게 쉽게 읽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책은 평론가나 연구자보다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동창에게 많이 보냈어요. 저야 책 받는 게 익숙한 직업이지만, 그들에게 책 선물이 귀하고 감동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잘 봤다며 선물도 보내오고, 몇 권 더 사서 주변에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무게를 덜고 소통 친화적인 글을 더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움의 깊이로 완성되는 추억**

산문집을 엮으며 과거를 음미하는 과정 속에서 유 교수는 지난날 곳곳에 남긴 삶의 흔적들과 마주하곤 했다. 그는 '생의 다른 곳에'라는 글에서 이러한 인생의 기억과 추억을 '물방울의 흔적'에 빗대어 기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물방울이 머물다 날아가면 '마른 흔적'은 그 물방울이 존재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지금은 그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증과 같다는 것이다.

“시간을 사이에 두고 물방울의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증명하는 실체가 바로 마른 흔적인 셈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한때 존재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거



나 소멸했다는 '실감' 사이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런 점에서 '추억'은 물방울 그 자체가 아니라 '물방울의 흔적'이라 할 수 있죠.”

유 교수는 추억이 꼭 과거지향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윤동주의 '자화상'의 마지막 문장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에서, 이때의 추억은 지난날을 감싸 안으면서,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서겠다는 성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억이란, 기억되는 그 순간의 온기로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꿈꾸는 기억'과 같다고 표현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 가사에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늙어가는 첫사랑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반가움과 동시에 상실감도 들 겁니다. 추억은 그리움의 깊이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이 앞서면 추억에서 '꿈'이 빠져나가고, 현재의 물리적 어색함만이 남게 됩니다. 오히려 꿈꾸는 기억으로 머물 때보다 더 왜소하고 허약한 추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움은 그 대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그리워하는 마음과 행위 자체에서 빛을 발하고, 그것이 생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에 반해 나이가 들수록 흔적보다는

물방울 자체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여생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에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과거에 매몰돼 현실에 울분을 갖고, 젊은 세대를 부정하는 등의 행위는 경험적 한계에 갇힌 결과라고 해석했다.

“흔히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는 식의 경험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젊어본 적 있다고 뭔가를 더 많이 아는 건 아녜요. 가령 어딘가를 직접 여행한 사람보다 가지 않고 책만 본 사람이 그곳을 더 잘 알기도 하잖아요. 실제 가본 사람은 경험적 한계에 갇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젊은이는 늙어보지는 않았지만 늙음을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늙어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재구성하는데 그치죠. 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을 내세우게 되고요. 옛날에도 말 안 듣는 학생은 많았는데, 마치 요즘 아이들만 유난하다고 지적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야' 등의 언행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역설적 기억, 청춘**

물론 누군가의 과거 속엔 각색되거나 과장된 경험이 아닌, 실제로 열정 넘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청춘'이라 부른다. 유 교수는 '청춘'이란 오히려 청춘을 지나버린 사람들의 생에서 발견되는 흔적, 즉 역설적 기억과도 같다고 일컬었다.

“청춘은 젊은 시절 의식 속에 존재하는 현재적 생의 조건이 아닌, 뒤늦게 발견하는 기억의 형식이라 볼 수 있죠. 막상 청춘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청춘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지나고 떠올려보건대, 온전히 대학 4년이 제 인생의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미정형이던 육신과 정신이 그때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됐고, 당시를 기점으로 생(生)이 갈라졌으니까요.

지금은 그때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책만 해도 대학 시절의 것이 많은데, 그때 읽은 것이 진짜 책이고, 요즘 읽는 것들은 플러시알파라고 봐요. 말하자면 별책부록 같은 거죠.”

별책부록에 자주 비유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여생(餘生)'이다. 유 교수는 책에서 '향원익청(香遠益清, 향이 멀리 퍼질수록 더 맑아진다)'을 언급하며 “자기 경험에 갇힌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향기를 전하는 노경(老境)의 모습이 간절할 때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생'이 아닌, 소통과 공감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반 인생'을 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부분 남은 생을 버티는 식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존경받는 어른로서의 후반생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고, 꿈에 그린 노후를 포기한 채 사는 이도 적지 않다. 유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로 자신의 말년을 위엄 있게 지켜나가길 바랐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긴 참 어렵죠. 그러나 그토록 힘든 만큼, 오히려 더 되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절대권력 앞에서 예정된 패배의 서사를 걷는 듯하지만, 그 패배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알 게 뭐야' 하며 무신경하게 사는 이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기억도 있어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부재함으로써 진정한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더군요.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치관을 나눈 이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고부터 시작되는 기억들이 존재해요. 아무리 내 삶이라도 그 기억의 용량까지 줄일 순 없잖아요. 가치 있다고 여긴 일들을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남기는 것이 삶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글 이지혜 기자 jyelee@ 사진 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유성호 교수는 '생(生)의 가치'는 분주한 일상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머릿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추억 속 살아 움직이는 '흔적'의 활력과 온기에서 입증된다고 말한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리브모바일! 통신생활을 쉽게 바꾸다



새로운 모바일의 시작



### 통신사, 리브모바일로 바꾸고 놀라운 통신생활 누리세요



**세상 놀라운 요금제**  
LTE 및 5G 파격적 요금 할인



**세상 간단한 가입절차**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유심만 꽂으면 가입 끝



**세상 쉬운 금융인증**  
모바일 인증서가 유심안으로! 갱신없이 인증

**LTE 무제한 요금제  
반값 할인 이벤트**

- 행사기간 : 2019.12.16(월)~2020.2.29(토)
- 대상 : Liiv M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고객
- 방법 : 행사기간 중 무제한(11GB+) 요금제 가입 시 자동 적용
- 혜택 : 무제한(11GB+) 요금제 개통월 포함 12개월 반값 할인 (월 44,000원 → 월 22,000원)

\*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다른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Liiv M 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점직원 또는 Liiv M 고객센터(1522-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2061-2호(2019.12.23), 광고물 유효기한 2020.02.29까지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전 주핀란드 대사

북한의 '정면 돌파' 혹은 '화려한 변신'

무엇이 새로운 길인지, 무엇을 정면 돌파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분하고, 답답하고, 아래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 그냥 큰소리쳐 본 것처럼 들린다. 이 와중에서도 확 눈에 띄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했다. 지구 중력과도 같은 비핵화와 개방, 개혁이라는 길을 애써 거부하고 있다.

올해는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가 없었다. 대신 지난해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알리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주요 문장의 주어들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이라고 하여, 이 보도가 김 위원장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보도의 전체 맥락을 보면 작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2018년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한 '총화(반성과 비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하였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선뜻 만나 주었고 회담 성과도 썩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하노이 2차 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뒤로 미룬 채 북-미 관계 개선과 제재 해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던 것 같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고서는 최고 존엄이 여러 날 동안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은 매우 아픈 일적이었다. 최고 존엄이 패장이 되어 다시 그 기

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최고 존엄의 치욕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작년 봄부터 '새로운 길', '연말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으나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북한에서 함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다. 그들 앞에서 미국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면 돌파'를 수십 번 외쳤다. 강력한 언어로 전의와 결의를 다졌다. 당과 내각의 간부들도 대폭 갈아치웠다. 하노이를 뒤로하고 최고 존엄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총화'였던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외침은 쇠사슬에 묶인 맹수의 노호처럼 들렸다. 미국에 대해 격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조건 절들이다.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문제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여운을 남겼다. '중중적인 실제 행동'도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도 모두 미래형이다. 모호하기는 경제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방향이 분명치 않다. '경제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이야기하고 '오늘날까지 와서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 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얼핏 시장화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동시에 '현존 경제적 토대를 효과적으로', '현실에 발을 튼튼히 두고'라고 하면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소득의 70% 이상을 시장에서 얻고 북한 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현실'은 어느 현실인가.

미국 문제에 나타나는 모호성은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막 나가기에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요소다. 북한이 제재 속에서 살아가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 당장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면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자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필경 중-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국내 부분도 모호하다. 허전하게도 들린다. 그가 지난해 경제적 성과로 내세운 것들이 삼지연시 꾸리기 2단계 공사, 산간 문화도시 건설, 중평 남새(채소)온실농장과 양묘장 같은 것이다. 2400만 주민이 움

직이는 경제의 성과로 이들을 내세운 것이다. 제재가 옥죄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경제의 절반 이상이 계획이 아닌 시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당과 내각의 실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기는 어렵다. '내각책임제'를 부르짖고 있지만 선대에 이미 나온 이야기들이다.

무엇이 새로운 길인지, 무엇을 정면 돌파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분하고, 답답하고, 아래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 그냥 큰소리쳐 본 것처럼 들린다. 이 와중에서도 확 눈에 띄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했다. 지구 중력과도 같은 비핵화와 개방, 개혁이라는 길을 애써 거부하고 있다. 뒤집어 보면 핵을 포기하고 화려하게 변신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면 돌파'를 그토록 여러 번 외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까. 이런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원미숙의 참견

동국대 신소재공학부 초빙교수

최근 에너지 및 자원 절약, 공해 방지, 생산부문의 고효율화와 정밀화, 주택·사무실 각종 기기의 고성능화, 교통 통제 및 재해방지 시스템의 효율화 등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실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IoT)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생활 속 주변 사물에 모든 정보를 검출하는 장치인 센서를 탑재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이 상호 통신하는 구조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센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 및 에너지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눈(시각), 귀(청각), 혀(미각), 코(후각), 피부(촉각) 등은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는 센서

에 해당한다. 제품화된 센서와 비교해 보면 눈은 광센서, 귀는 음향센서의 기능을 가지며 혀는 화학센서와 정보처리용 컴퓨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눈, 귀, 혀, 코, 피부 등의 감각기관이 중요하듯 센서는 환경측정장비, 의료측정기기, 계측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IoT 실현을 위한 필수 기술이기도 하다.

이 중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센서는 1962년 L. C. 클라크가 효소 전극(enzyme electrode)을 이용하여 최초의 글루코스 센서를 개발한 이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래 유망 산업 가운데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센서는 분석물과 감응물질의 화학적, 생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분석물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특정물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로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이온 또는 유전자, 단백질, 대사화합물 등 생체물질의 정성과 정량에 사용된다. 유전자나 단백질 및 효소 등의 상호작용을 원리로 하는 바이오센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는 주로 임상적 수요가 큰 혈당센서에 집중되어 왔으나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및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생체물질의 검출뿐만 아니라 의료용 진단센서, 환경, 식품, 군사 및 연구용 등으로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유전자 및 질병검사 등을 통해 질병의 예방, 예후 관리, 재택 및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고감도, 실시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처방하는 유비쿼터스 의료 시스템에도 바이오센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신체에 착용하거나 부착해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체에 부착해 눈물, 땀 등 생체 용액을 분석하여 건

강지표와 관련된 화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웨어러블 센싱 플랫폼 기술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바 있다.

민감도, 선택성, 다양성 및 동시 다발적인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센서는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IoT의 핵심 기술 중 인간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기술이다. 따라서 소형화, 피드백,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기술적 진보가 관련 제품 개발에 대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오센서의 제품화에는 관련 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센서 소재 및 칩 제조 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과학·화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기술 및 전자-정보 기술 등과의 효율적인 융합으로 차별화된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센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마케팅에 대한 치밀한 기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IoT의 핵심기술, 바이오센서

이투데이, 말투데이

☆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명언  
"인생은 연극과 같다. 훌륭한 배우가 걸인이 되고, 삼류배우가 귀족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라."

일본의 계몽가, 교육가, 언론인, 저술가. 봉건시대 타파와 서구 문명의 도입을 주장한 그는 실학과 부국강병을 강조해 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의 대표 저서인 '학문의 권장', '문명론의 개략' 등은 당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35~1901.

☆ 고사성어 / 자지자명(自知者明)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출전은 노자(老子). 원문은 "다른 사람의 현명하고 현명치 못함을 분별하는 것은 슬기이며, 자기의 현명함과 현명하지 못함을 아는 것은 마음에 한 점의 티끌도 없는 밝음[知人者智自知者明]인데, 이는 남을 아는 슬기보다 월등히 명철하다는 말. 남을 아는 사람을 지(智),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明)이라 하고,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롭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는 뜻이다."

☆ 시사상식 / 하이퍼마켓  
비식품류보다 1차 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구비 비중이 높은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백화점의 대형 소매점. 과일, 채소, 육류, 어패류 등 1차 식품을 포함한 식품에서 의류, 가전, 가구, 잡화 등 각종 공산품까지 수만 가지에 이르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유머 / 여성 전용  
남자가 소변이 급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여자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안에 있던 여자가 기겁해 "어머머! 여기는 여성 전용이야!"라고 소리쳤다.  
순간 당황한 남자가 당당하게 한 말. "그래요? 이것도 여성 전용인데."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박진산 금융부/jinsan@

그들이 말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때도 그 칼날이 무디고, 방어할 때도 취약하다.

모호한 의미를 적용한다고 하자. 그러면 낙하산 인사는 무조건 좋지 않을까. 여기에도 의견은 갈린다. 전문성이 있고 결과가 좋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한다. 혹자는 이 경우 정치적 임명이어도 상관없다고 말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기업은행장 인선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다. 윤종원 행장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평가는 윤 행장이 임기를 마친 후 결과에 기밀 수밖에 없다. 이미 자리를

떠난 후에야 낙하산 인사란 비판이 가능한 셈이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미 사라진 권력에 물어야 한다. 이처럼 임명 과정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결과론에 불과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장은 투명하게 선정됐는가. 이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 누가 선정했는지 어떤 이유로 발탁했는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지는 요청도 묵살했다. 투명하지 않았으니,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번 정권은 지난 정부의 폐쇄적인 면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권력을 얻었다. 그들이 말한 투명성·공정성이 지금 여기에 있다.

새로 임명된 기업은행장이 며칠째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윤종원 행장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정확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누구는 낙하산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란 무엇일까.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보통 능력·자질·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에서 임명했을 때를 말한다.

능력이나 자질, 경험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에 낙하산 인사는 결국 정의하기 어렵다. 모호한 의미 때문인지 공격할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새해 증시 운영 어떻게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ESG·外人투자정보로 시장 활력 불어넣을 것”

<환경·사회·지배구조>

1956년 출범한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거래대금 세계 9위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국채와 ETF시장도 각각 세계 3위, 8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최고 수준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과 효율적인 거래 플랫폼을 갖추며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심에는 '자본시장의 꽃', 유가증권시장이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만난 임재준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1988년 입사해 인덱스사업, 정보사업, 파생상품시장 등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임 부이사장을 선두로 올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ESG 정보 확대 △SRI(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 △영문 공시 제공 △신인프라 기업 유지 △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재준 부이사장은 “대내외 변동성으로 올해도 불안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외국인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해외에 비해 편의성이 높고 우수한 IT인프라를 보유 중이다. 미국과 유럽은 증권거래소와 파생상품거래소, 일반상품거래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시장접근성이 낮다. 인프라 역시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초고속 처리 성능과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종합거래소로 매매체결에서 청산결제까지 모든 단계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국채·레포(REPO)·일반채권을 거래하는 채권시장부터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일반상품시장(금·배출권·석유) 등 다양한 시장이 있어 투자 기회도 넓다”고 설명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신산업 발굴을 꼽았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애플(APPLE)의 시가총액은 약 1350조 원으로 코스피 시장(1429조 원, 11월 기준) 전체와 비슷한 규모다. 한국은 수년째 제2차에 머물며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부이사장은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처럼 미래산업을 이끌 대규모 인프라 관련 기업이 적시에 상장하도록 진입요건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우량기업과 상품을 적극 유치하고 신규 투자수요를 확충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와 고령화 확산, 해외 주식투자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신상품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로 안정적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공모리츠 등 배당투자상품 상장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거래소는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 등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인컴형 상품 확대에 주력한 바 있다. △싱가포르 리츠 △부동산인프라고배당주 △미국 장단기우량회사채 △고배당주 관련 ETF도 도입했다. 올해 관련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SG 확대도 올해 역점 사업이다. 그는 “지난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제도가 시행됐다”며 “의무공시



임재준 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에 관한 투자 문화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인프라 기업 적시 상장 위해 신사업 진입요건 새롭게 정비
- ★ 무차입 공매도 거래 금지 등 철저한 규제로 역기능 최소화
- ★ 자산총액 2조 이상 대형사 지배구조 의무공시제도 성과
- ★ 환경·사회 정보공개 확대
- ★ 상장법인 자발적 참여 유도
- ★ 외국인 투자 위한 영문 공시도

대상인 200개 기업이 모두 기한 내 공시를 완료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ESG 사회 책임투자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E(환경)·S(사회)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교육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ES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주문주도형 시장과 호가주도형 시장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시장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문주도형은 딜러 개입 없이 시장참가자 주문에 의해서만 거래가 체결된다. 반면 호가주도형은 투자자가 딜러가 제시한 호가에 응해야 한다. 이 둘을 결합해 투명성과 가격발견기능을 획득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부이사장은 “지난해 12개 시장조성자(증권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74개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을 하면서 주식 거래비용 감소 및 가격안정성 향상 등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도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투자자들이 원활히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재준 부이사장은...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1963년생으로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에는 미주리주립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거래소 입사 이후 △파생상품시장본부 신사업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장 △파생상품연구센터장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2년 10월 31일 까지다.

화 △세제환경 개선 등도 추진한다.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는 “지난해 메릴린치 사건 등 불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며 “IT와 빅데이터 활용 등 기술 발전으로 선진시장에서는 해당 매매기법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공매도와 세제 역차별 등을 둘러싼 지적에는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규제준수 미흡, 낮은 제재 수준 등 공매도에 관한 여러 불만을 알고 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업틱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철저한 규제와 확인으로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형 ETF 상품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해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우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에 관한 투자문화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인 등 일부 투자 주체의 매매를 그대로 추종매매하거나 증권가 소문 등 근거 없는 미확인 정보를 따르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매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투자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 투자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시설

세계 경제 성장 후퇴, 한국 경제 먹구름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6월 내뱉던 2020년 성장률 전망치(2.7%)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WB는 선진국그룹의 경우 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과 무역분쟁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종전 전망보다 0.1%P 낮아진 1.4%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로 0.5%P나 떨어뜨린 4.1%로 내다봤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후퇴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한·일 무역갈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WB가 한국의 성장률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작년 6.1%에서 올해 5.9%로, 일본은 1.1%에서 0.7%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의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양측이 군사적 정면 충돌을 자제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위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렵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이 확정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0.5%P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경제동향 2020년 1월호’에서 최근 경

제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유지했던 ‘경기 부진’ 진단의 우려 수위를 낮춘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와 서비스 생산 증가폭이 확대되고 경기선행지표도 개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기반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투자와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바닥인 까닭이다. 설비와 건설 투자가 계속 위축돼 있고, 제조업의 재고율은 높아진 데다 가동률도 떨어지는 추세다. 다만 국내 경기가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실었다.

세계 경제가 계속 부진할 것이라면 전망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작년 전망(2.0%)보다 나아진 2.4%로 잡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달성이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WB는 세계 각국이 생산성 향상과 부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인적 자본과 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성장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도 그것이다.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 전면 개혁,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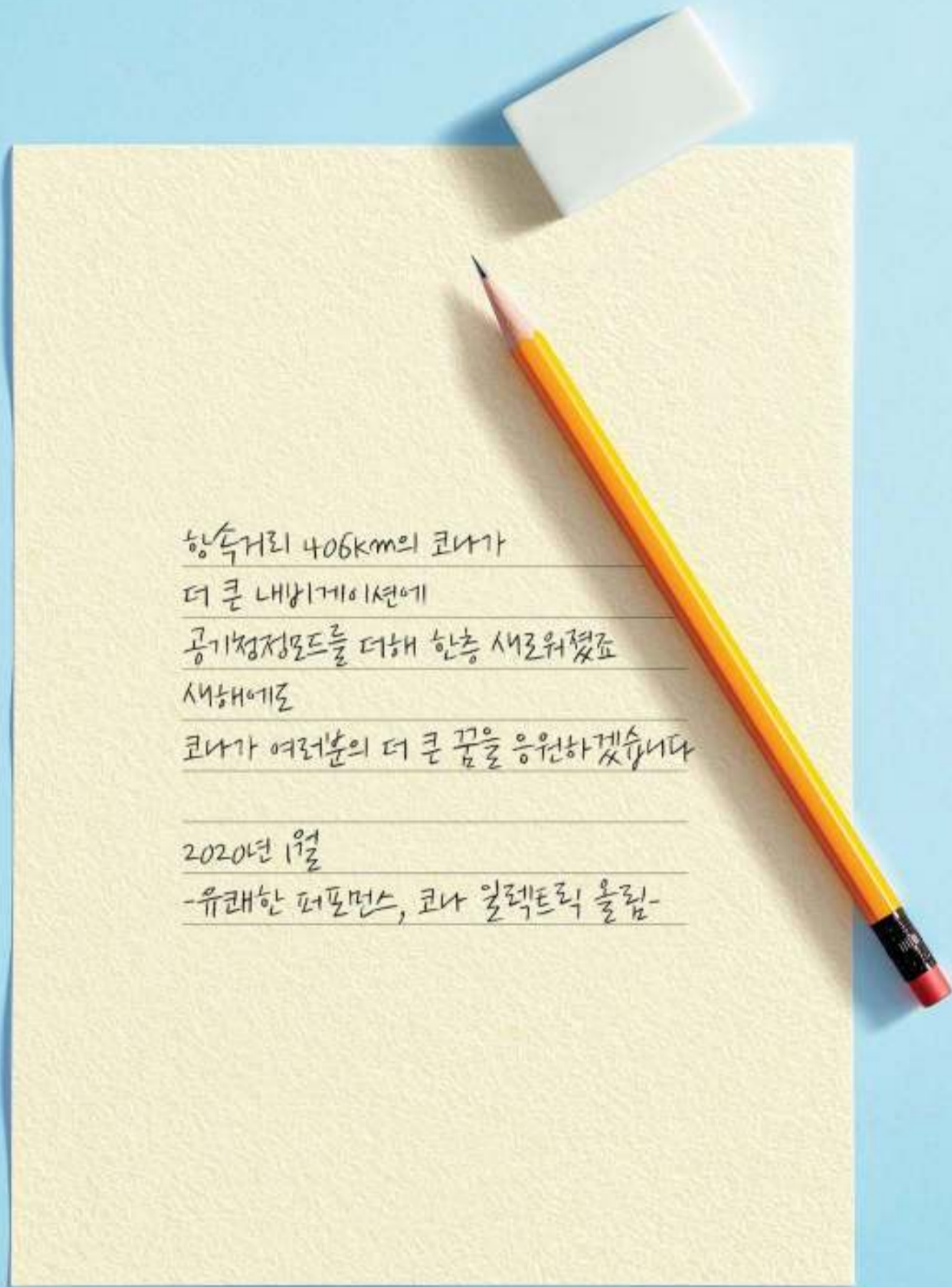
한 킷



2020 여의도 풍향계는?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과 ‘조국 사태’로 공회전만 거듭했고 코스피는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 수출 부진 등 악재를 겪으며 박스권에 머물렀다. 올해 치러질 21대 총선엔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올해 코스피가 반등할 것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0년, 국회와 여의도 증권가 옆을 달리는 차량들의 궤적처럼 막힘 없이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 2020 KONA Electric 출시

동급 최고수준 항속거리 406km | 10.25인치 내비게이션 | 공기청정모드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KONA Electric (I7) : 복합에너지소비효율 5.6km/kWh (도심 : 6.2km/kWh, 고속도로 : 5.0km/kWh) 복합 CO2 배출량 0g/km | 복합(회중)주행거리 406km (도심 : 444km, 고속도로 : 359km) 배터리 용량 64kWh | 충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56V(180Ah) | 공차중량 1,685kg  
 [ 최고출력 204PS, 150kW ▶ KONA Electric\_저용량 배터리 (I7) : 복합에너지소비효율 5.8km/kWh (도심 : 6.5km/kWh, 고속도로 : 5.1km/kWh) 복합 CO2 배출량 0g/km | 복합(회중)주행거리 254km (도심 : 282km, 고속도로 : 221km) | 배터리 용량 39.2kWh | 충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27V(120Ah) | 공차중량 1,540kg | 최고출력 136PS, 100kW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효율/주행거리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효율/주행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충전소요시간 : 급속 54분(100kW 충전기, 0%~>80% 충전시)/75분(90kW 충전기, 0%~>80% 충전시), 완속 9시간 35분(7kW 충전기, 0%~>100% 충전시)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 시스템 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판매지동지는 지점(대리점)의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가격으로 배론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